

2008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09년 전망

임강택(통일연구원)
이석기(산업연구원)
이영훈(한국은행)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8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09년 전망

임강택(통일연구원)
이석기(산업연구원)
이영훈(한국은행)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본 서의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 약

1. 2008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1) 경제정책 추진 관련

- 북한은 200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정하고 2008년을 ‘전환의 해’, ‘인민생활 개선의 해’로 설정했으며, 정권 수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등 나름대로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새로운 경제정책의 변화는 발견할 수 없었음.
 - 대외경제협력분야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북핵 6자회담의 진전으로 인한 대외여건의 긍정적 변화를 북한당국이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되었으나, 가시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음.
 - 북한 내부적으로 공급부족이 만연함에 따라 공식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가 커지면서 내부 경제가 안정되지 못했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적 경제환경의 불안정이 증가한 점도 경제정책의 보수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평가됨.

(2) 거시경제 지표 관련

- 2008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431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7.5% 증산되었음. 전력의 경우 전년 대비 10% 내외의 증산이 예상되며, 경공업의 경우 지하자원 공동개발 사업의 대가로 2007년 0.7억 달러, 2008년 0.1억 달러의 경공업원 원부자재(비누 및 신발)를 제공함에 따라 그에 따른 생산증대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그 외 북·중무역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남북교역이 정체됨으로써 무역의 생산증대에 대한 기여도는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산업 및 무역 현황이 전반적으로 2007년보다 개선되고 있어, 2008년 경제성장률은 플러스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그러나 북한경제성장률 추정에 적용되는 한국의 환율 급상승을 고려할 때, 2008년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마이너스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음).

(3) 주요 산업부문

- 2008년 북한의 산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생산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 요인으로는 양호한 일기조건, 일부 기간산업 설비에 대한 개보수 성과, 6자회담 틀에 의한 중유 및 발전설비 지원, 남한으로부터의 경공업 원부자재 지원, 국제상품가격의 상승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 농업부문은 양호한 기상 조건과 자체 비료 생산의 증가 등에 의해서 남한으로부터의 비료지원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곡물 생산은 전년도보다 30만 톤 증가한 431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전력부문은 수력부문의 호조와 6자회담 관련 중유, 발전소 설비, 자재 지원 등에 의해 적어도 상반기 중으로 생산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 산업 전반의 가동률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됨.
 - 제조업부문은 공장 가동률 제고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전력 공급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생산이 증대
 - 과학기술부문은 2008년에도 강조되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일부 생산 현장에 적용되는 실용적인 기술의 보급, 발전소 등 일부 기업의

생산 정상화 및 현대화 추진 등에 머무른 것으로 보임.

- 건설부문은 평양시를 중심으로 인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 (연평균 2만 세대), 음식점, 상하수도, 도로 등의 건설·보수 등을 중심으로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 유통부문은 경공업 생산 증가 등으로 유통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4) 대외교역 및 협력부문

- 2008년 중 남북교역은 1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에 불과
 - 특히 매년 40만 톤의 쌀과 30~35만 톤의 비료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북한의 식량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반면 2008년 북·중무역은 1~11월 중 전년 동기대비 29.3%로 2005년 14.9%, 2006년 7.6%, 2007년 16.1%에 비해 크게 증가
- 한편 자원 확보와 기간산업 선점, 시장 확대 가능성, 저렴한 인건비 활용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대북 투자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가와의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유럽, 이집트 등의 중동 나라들과의 경제관계 개선이 두드러짐.

2. 2009년 북한경제 전망

(1) 추진여건

□ 대내 환경

-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 이상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북한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회복을 과시하는 동정 보도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음.
- 시장화 확산에 대한 통제 강화: 최근 북한경제의 시장화가 확산되는 현상에 위기감을 느낀 북한당국은 시장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식량 부족 현상의 지속: 한국농촌진흥청의 2008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431만 톤으로 식량 수입분(20~30만 톤) 및 국제사회 지원량 등을 고려할 경우 2009년에는 약 40~5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됨(북한의 최소식량수요를 540만 톤으로 가정).

□ 대외 환경

- 남북관계의 경색: 2008년 남북관계는 초기의 기선제압을 위한 힘겨루기 상황에서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급기야 북한당국이 개성공단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하겠

다는 조처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에 따라서 그나마 유지되던 남북 간의 경제협력사업 마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됨.

- 세계 금융공황의 발발로 세계경제의 위축 예상: 세계경제는 지난 9월부터 심각한 글로벌 금융경색에 직면하여 실물경제도 동시에 추락하는 복합 불황의 상황을 맞고 있음.
-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출범: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대외환경은 미국의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2009년도를 북한체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2) 경제정책

- 기본적으로 2009년 신년사에서 북한의 향후 대내외 경제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은 발견할 수 없으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살리기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신년사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올해 북한의 경제정책은 외부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과거 회귀적이고, 보수적인 기조를 떨 것으로 전망됨.
- 대외경제관계와 관련해서는 2008년 신년사에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원칙을 틀어쥐고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강조한 것과는 달리 2009년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 대내 경제정책

- 2009년에도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농업문제 해결을 내세울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북한경제의 ‘선행부문’의 정상화와 현대화 작업은 2009년에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선정되어 경제회생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강국 건설’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사회주의 원칙을 토대로 한 계획사업체계, 유통체계, 시장의 효과적 관리체계 등 경제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이 현실적인 경제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최신 과학 기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를 현대화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대외 경제정책

- 국제경제의 침체와 함께 미국 달러화 및 중국 위안화 가치가 상승 국면을 이어갈 경우 북·중간 교역을 포함한 북한의 대외무역은 상당한 수준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2008년과 마찬가지로 중국경제의 경기 위축 현상은 2009년 북·중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러시아와 추진 중인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의 개선 공사도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EU와 중동국가들과의 경제협력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들은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오바마 정부와 관계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리려면 비확산, 인권개선 그리고 시장 경제지향적인 개혁 등을 진전시켜야 할 것임.
- 그러나 시장지향적 개혁에 대한 자신감 결여,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견해 차이, 뿌리깊은 불신 등으로 인해 핵문제 진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

(3) 주요부문별 국내 경제 전망

- 에너지 및 광업부문
 - 핵 문제의 진전이 있을 경우 발전량 등 에너지부문은 2008년에 이어서 2009년에도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전체 산업부문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임.
 - 광업부문은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수요 감소 요인이 적지 않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2008년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식량 사정
 - 2009년 북한의 곡물 수급 사정은 2008년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판단됨.
 - 2009년 북한 최소곡물수요량은 540만 톤, 확보 가능량은 490~500만 톤으로 40~50만 톤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8년의 부족량 79만 톤보다는 감소된 규모임.
 - 그러나 실제 주민에게 공급되는 식량은 2008년보다 크게 증가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비축미를 동원하여 부족한 식량을 어느 정도 충당하였고, 지난해에 생산된 식량의 일정 부분이 다시 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제조업부문

- 전력 생산의 증가와 금속, 화학, 건재 등 일부 중화학 공업부문 대규모 설비의 가동률 상승 등으로 일부 경공업 원자재와 비료 등의 공급이 늘어나겠지만,
- 남북경협의 축소와 주요 외화 가득원의 수출 감소 등으로 설비 및 원부자재의 전반적인 수입 여력이 감소하여 산업 생산이 2008년과 같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건설부문

- 평양의 주택 건설 등이 갑작스럽게 축소되지는 않겠지만, 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이루어졌던 대대적인 건설활동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정체될 가능성이 있음.

○ 상업·유통부문

- 북한당국이 사적인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시장 규제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비사회주의 유통부문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공식적 유통망이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4) 주요부문별 국제 경제 전망

○ 무역부문

- 북·중무역: 최근의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남북경협: 2008년 12월 1일에 취해진 북한당국의 남북경협 축소 조치로 인해 핵문제 및 북·미관계 개선이 획기적으로 진전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은 점차 위축될 것으로 보임.

- 기타 국가와의 무역도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북한의 주요 외화소득원인 남북경협의 위축 및 대중국 수출의 감소로 인해 북한의 외화수급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임.

○ 투자부문

- 만약 북한이 2012년 ‘경제강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려면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여야 할 것임.
-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주변국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단기간에 핵문제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외국투자자들의 북한 시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됨.

• 목 차 •

I. 2008년 북한의 경제정책	1
1. 대내 경제부문	1
가. 추진여건	1
나. 추진방향과 전략	4
(1) 추진방향과 원칙	4
(2) 우선순위 및 추진전략	5
다. 부문별 추진과제	6
(1) 재정·예산부문	6
(2)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부문	7
(3) 농업부문	8
(4) 경공업부문	9
(5) 보건·수도건설·국토관리사업부문	9
(6) 과학기술부문	10
(7) 경제관리개선	11
2. 대외 경제부문	12
가. 추진여건	12
나. 추진방향	15
다. 추진과제	16
3. 2008년 북한의 경제정책 특징	18
II. 2008년 북한경제 실적	21
1. 대내 경제부문	21
가. 부문별 실적	21

(1)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등 선행부문	21
(2) 농·림·축·수산업부문	27
(3) 경공업부문	28
(4) 과학기술부문	29
(5) 보건·수도건설·국토관리사업부문	31
(6) 상업·유통부문	32
나. 대내 생산의 특징	33
(1) 상반기 생산 실적의 증가	33
(2) 생산 실적 관련 북한 매체의 보도	34
(3) 식량생산 실적의 증가	35
2. 대외 경제부문	37
가. 대외무역 실적	37
(1) 남·북교역	37
(2) 북·중무역	40
(3) 북·일무역	43
나. 대외경제협력 실적	44
(1) 중국	44
(2) 러시아	46
(3) EU	46
(4) 일본	48
(5) 기타 국가	48
다. 대외경제 실적의 특징	50
(1) 대외무역의 특징	50
(2) 대외경제협력의 특징	50

Ⅲ. 2008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09년 전망	52
1. 2008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52
가. 남북경협외의 과급효과	52
(1) 자원의 이전	52
(2) 경공업 원부자재의 지원	55
(3) 6자회담 관련 에너지 물자의 지원	57
나. 대외무역 및 국제사회 지원의 증대 효과	58
(1) 對중국 수입 구조의 특징과 북한의 생산 촉진 효과	58
(2) 6자회담에 의한 대북 중유 및 발전설비지원 효과	59
(3)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북한경제에 대한 과급 효과	63
다. 북한의 시장화 수준과 당국의 통제 실태	66
(1) 북한의 시장화 실태 및 추가적인 개선 조치	66
(2) 시장에 대한 북한당국의 통제 강화	67
라. 종합평가	68
(1) 경제정책 추진 관련	68
(2) 거시경제 지표 관련	70
(3) 주요 산업부문	71
(4) 대외교역 및 협력부문	73
2. 2009년 북한경제 전망	75
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조치의 효과 전망	75
나. 2009년 식량수급 전망	78
(1) 2008년 식량수급 실태	78
(2) 2009년 식량수급 전망	80
다. 2009년 북한경제 전망	82
(1) 추진여건	82
(2) 경제정책	85
(3) 주요부문별 국내 경제 전망	90

(4) 주요부문별 국제 경제 전망	93
--------------------------	----

| 부 록 |

2008 북한경제 주요실적	96
2008 북한경제 주요행사	99
2008 북한경제 주요일지	102

• 표 목차 •

〈표 1〉 북한의 식량 총공급량(생산 및 도입량) 추이	36
〈표 2〉 최근 남북교역 현황	37
〈표 3〉 개성공단의 생산 및 수출 현황	39
〈표 4〉 부문별 남북교역 현황	40
〈표 5〉 북한의 대중국 무역 현황	41
〈표 6〉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42
〈표 7〉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43
〈표 8〉 북한의 대일본 무역 현황	44
〈표 9〉 북한의 대남 일반교역 흑자 추이	52
〈표 10〉 북한의 금강산 및 개성관광 대가 수입 현황 추계	54
〈표 11〉 대북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규모 추계	55
〈표 12〉 2008년 대북 중유지원 실적	59
〈표 13〉 북한 항구의 중유 저장설비 규모	60
〈표 14〉 KEDO중유 사용 발전소 현황 및 소비 비중	61
〈표 15〉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출단가 현황	64
〈표 16〉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64
〈표 17〉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입단가 현황	65

〈표 18〉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65
〈표 19〉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이후의 대북제재 목록	76
〈표 20〉 북한의 대중 곡물수입실적(2007~2008)	79

• 그림 목차 •

〈그림 1〉 거래유형별 구성비 변화	38
〈그림 2〉 상업적거래內 개성공단 비중 및 월별 상업적거래 증가율 변화	39
〈그림 3〉 북·중무역 월별 추이	41

I. 2008년 북한의 경제정책

1. 대내 경제부문

가. 추진여건

□ 정치적 환경

-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심화와 북한사회의 일탈현상에 대한 위기감이 증대된 것으로 평가됨.
 - 2007년 북한은 일반주민들의 사상 오염을 방지하고 중간 간부들의 부정·부패 등 일탈행위에 대한 중앙차원의 검열사업을 강화하는 등 내부적 정치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됨.
 - 중앙당 검열그루빠는 2007년 두 차례(3~4월, 9~10월)에 걸쳐 신의주 세관에 대한 집중검열을 시행하였으며, 2008년 4월 말부터는 중앙당 비사회주의그루빠(그룹검열단)가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검열을 하였고, 5월에는 20여 년 만에 중앙검찰소가 전국 주요도시의 보위부·보안서·재판소·도당·시당·인민위원 등 책임자급에 대한 검열을 단행함.
 - 이와 함께 “시장이 비사회주의의 서식장이 되었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판에 따라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북한당국은 시장경제활동의 증가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자 이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계획경제부분의 생산물이 시장으로 유입되어 국가차원의 경제관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확산과정에서 불법적 이익을 챙겨온 신흥부자(붉은 자본가)들과 일부 특권계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임.

□ 경제·사회적 환경

- 2007년 북한경제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의 실적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7년 북한의 GDP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7년 경제실적의 감소는 기상여건의 악화로 인한 곡물생산, 석탄 및 비금속광물의 생산, 건설부문의 실적 감소 등에 기인
- 2007년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 역시 감소하였으나 남북교역은 증가함.
 - 북한의 2007년도 대외수출은 9.2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3%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20.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 수출의 감소는 기계류와 섬유류에 집중되었으며, 수입의 감소는 기계류와 비금속광물제품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남.
 - 반면에 남북교역에서는 2006년에 비해 33.2% 증가한 1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대북 반출의 경우 개성공단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기계·장비류 등의 반출 증가로 전년대비 2억 달러가 늘었으며, 반입의 경우에는 아연괴, 모래와 위탁가공품목의 반입 확대로 전년대비 2억 5천만 달러 증가함.

- 2007년 식량 생산 감소로 인한 식량 공급 능력의 감소
 - 2007년의 곡물생산 및 도입량은 예년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07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401만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50만 톤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FAO는 이보다 100만 톤 정도가 적은 300만 톤으로 추정하였음.
 - 2007년 곡물의 외부도입량(HS 코드 10 기준)은 남한의 차관형식의 쌀 지원분 40만 톤을 포함하여 약 55만 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바, 2007년 북한의 식량 총공급량은 355~456만 톤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북한의 연간 최저 곡물수요량을 520만 톤 내외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2008년 식량부족량은 최소 약 64만 톤에서 최대 165만 톤에 달할 것으로 평가됨.

- 시장경제의 확산
 - 북한당국이 비공식부문을 중심으로 시장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일반주민들의 공식경제부문에서의 활동 기피가 공식경제부문의 생산활동 정상화를 저해
 - 둘째, 시장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신흥부자들의 출현으로 계층간 빈부격차가 확대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심화
 - 셋째, 시장을 통해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CD나 DVD가 유통되는 등 외부의 정보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시장이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

- 대규모 실업의 존재
 - 북한의 노동력 대부분을 소화해 왔던 공업 및 건설부문의 장기적인

침체로 대표되는 공식경제부문의 붕괴는 공식·비공식 실업자의 양산을 의미함.

-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북한의 경제형편에서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나. 추진방향과 전략

(1) 추진방향과 원칙

- 북한의 경제정책은 새해에 발표되는 신년사설과 상반기에 발표되는 최고인민회의 발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음.
 - 북한당국은 신년사설을 통해서 한 해 동안 경제부문의 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발표된 보고문을 통해 신년사설에서 제시된 경제정책의 목표와 주요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2008년 ‘경제강국 건설’의 기본 방향

- ‘인민경제의 주체성’ 강화
-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 실현
- ‘자립적 민족경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의 발양

□ 2008년 경제사업의 기본 원칙

- 경제구조의 특성을 살리면서 인민경제를 기술적으로 개진해 나가는 원칙
-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면서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덕을 보게 하는 원칙
- 내부의 원천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외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원칙

(2) 우선순위 및 추진전략

- 우선순위를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 ‘인민생활제일주의’, 과학기술의 역할 증대, 그리고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관리 강조 등의 순으로 제시함.
- 첫째,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에서는 특히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의 증산과 기능 제고 등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함.
 - 이를 위해, “전력·석탄·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추켜세우는데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선행부문들의 생산과 기술개진사업 사이의 협동(연계)을 강화”할 것을 강조
- 둘째, ‘인민생활제일주의’ 차원에서는 특히, 주민들의 먹는 문제의 해결과 생활필수품 부족 해소 및 건설부문 실적 증진 등을 강조함.
 - 농업부문에서 다수확 품종의 파종 확대와 선진적인 영농기술 및 영농방법의 도입, 농촌지역에서 농촌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주인의식 제고
 -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소비품의 지표’의 확대와 내부 예비의 최대한 동원

- 건설부문에서는 ‘하부구조 건설 우선 원칙’ 하에서 도시경영부문 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성의 강화, 그리고 백년대계의 수립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토관리와 환경보호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셋째, ‘경제강국 건설’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제고를 촉구함.
 - 이를 위해,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공장·기업소들에서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체계를 확립하며,
 -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강화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교육사업을 통한 인재의 양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 넷째,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의 책임의식 강화를 강조함.
 - 이를 위해, 모든 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를 위한 강력한 규율과 질서의 수립
 -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원칙, 집단주의 원칙의 고수

다. 부문별 추진과제

(1) 재정·예산부문

- 2008년 국가예산 수입계획은 2007년 대비 4.0% 증액 편성하고, 전년 대비 예산수입의 부문별 증가율을 다음과 같이 예상함.
 - 국가기업이득금 수입: 4.7%
 - 협동단체이득금 수입: 0.4%
 -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수입: 2.6%
 - 부동산 사용료 수입: 3.1%
 - 사회보험료 수입: 1.1%

- 2008년 국가예산 지출계획은 2007년 대비 2.5% 증액 편성하고, 전년 대비 예산지출의 부문별 증가율을 다음과 같이 예측함.
 - 4대 선행부문: 49.8%
 - 농업부문: 5.5%
 - 과학기술부문: 6.1%
 - 인민적시책: 1.7%(이 중 교육부문 4.2%, 보건부문 5.9% 증가)

(2)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부문

〈전력공업부문〉

-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중소형발전소 건설 및 발전설비들의 현대화를 통한 전력 증산
 - 건설 중인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조기 조업
 - 현존 수력발전소들의 수차개조 사업 추진
 - 화력발전소들의 설비 보수와 석탄 보장 사업 추진
 - 생산된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

〈석탄공업부문〉

- 탐사와 굴진 확대를 통한 석탄의 증산
 - 석탄증산을 위한 굴진 작업의 선행
 - 채탄장 수의 확대
 - 선진적인 채탄방법의 적극적인 도입

〈금속공업부문〉

- ‘우리 식’의 철생산 방법 도입·확산을 통한 철강재의 증산
 - 생산 정상화를 위해 ‘주체철’ 생산방법과 기술공정의 완성

- 설비들의 정비 및 보강
- 금속공장들의 물동수송 문제의 해결

〈철도운수부문〉

- 규율 강화와 수송조직 및 지휘체계의 개선을 통한 수송수요의 보장
 - 철도화물 수송의 정상화를 위해 기관차, 화차의 생산과 수리를 강화함으로써 운영대수를 확대
 - 수송지휘에서 '유일사령 지휘체계'의 확립

〈기타부문〉

- 지질탐사사업과 채취공업부문에 치중하여 나라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며, 기계·화학·건재공업과 임업부문에서도 생산 증대
 - 지질탐사 사업을 통한 유용광물(석탄, 유색금속 등) 개발 후보지 확보
 - 채굴공업의 발전을 통한 지하자원의 개발
 - 기계공업부문은 생산토대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기계제품의 증산
 - 전자공업 발전을 통한 전자제품의 증산
 - 체신부문 현대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화학공업부문과 건재공업부문, 임업부문에서는 기술 현대화를 통한 중요 화학제품과 시멘트, 통나무 등의 증산

(3) 농업부문

- '당의 농업혁명방침'의 요구대로 다수확품종을 많이 심고, 선진적인 영농 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
- '감자농사혁명' 방침의 관철과 콩 농사 방법의 개선

- ‘당의 감자농사혁명 방침’의 준수
-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콩 농사 개선
- 농사에 필요한 영농설비와 자재들의 적기 보장
- 기 건설된 현대적인 축산기지, 양어기지, 과일생산기지의 효과적인 운영
 - 현대적인 닭공장, 오리공장, 돼지공장들에서 고기와 알 생산의 증대

(4) 경공업부문

- ‘인민소비품 지표’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질적 수준의 제고와 함께 주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
 - 경공업공장의 완전 가동을 통한 인민소비품의 증산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내부 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생활필수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
 - * 가

(5) 보건 · 수도건설 · 국토관리사업부문

- 각급 병원들의 정비 및 의료봉사 수준 제고
- 건설부문: 평양시 건설에 매진, 농촌살림집 건설 확대

(6) 과학기술부문

- 경제발전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율 제고를 목표로 제시
 -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2008~2012)의 과제 완수
 - 모든 공장·기업소들에서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체계의 확립
 - 프로그램과 기술의 조속한 발전 및 정보산업 발전에 주력

- 북한은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문제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해결해야한다는 점을 강조
 -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이 ... 조건에서 나라의 경제를 안전하게 발전시켜 나가려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원료, 연료, 동력문제를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거해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08년 2호)
 - 노동신문(2008.10.23)도 ‘경제건설에서 당의 과학기술 중시 노선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원료, 연료, 자재가 부족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애로와 난관”이 있는 상황에서 “생산을 빨리 늘리자면 과학기술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이와 함께 북한은 2008년 초, “올해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수십 건의 과학기술발표회, 전시회들이 진행되게 된다”고 예고함(연합뉴스, 2008.10.9).
 - 주요 발표회로는,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부문의 부문별 과학기술 발표회를 비롯한 40여 건의 발표회를 제시
 - 전시회의 경우에는, 기계설계·나노과학기술을 비롯한 기초 첨단부문의 성과 전시회와 기초식품부문·육종부문·농기계부문을 비롯한 경공업, 농업부문의 전시회 등 10여 건의 과학기술성과전시회를 예고

- 그러나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발표(2008.4)된 예산계획에 따르면, 지난해(전년 대비 예산이 60.3% 증액 편성됨)에 비해 증가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6.1%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인상을 주고 있음.
 -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된 4대 선행부문의 경우, 지난해의 증가율 11.9%보다 37.9% 증가한 49.8%의 증가율을 기록

(7) 경제관리개선

-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원칙 및 집단주의 원칙의 고수,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등을 강조
- 경제사업에서 내각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최근 북한 내부에서 내각의 실질적인 위상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가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2. 대외 경제부문

가. 추진여건

□ 남북관계

- 2007년 10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의 강화를 통해서 남한경제에 대한 기대감의 확대와 자본주의 사상의 확산을 경계함.
- 대남사업기관에 대한 검열을 통해서 물같이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대남사업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
 - 지난 10년 남한의 대북포용정책 시기 동안 남북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추진, 조직체계에 대한 정치적인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평가됨.
-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비핵·개방·3000 구상'의 제시
 -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과 한·미동맹의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당국의 평가는 부정적임.
 - 그러나 신정부 대북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개방·3000 구상'이 핵문제 해결의 진전과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조건을 달고는 있지만 대규모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부문도 있어서 그러한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북한당국으로서는 일단 조심스러운 기대감과 함께, 새로운 이명

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초를 주시한 뒤, 상응하는 대남전략을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됨.

-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한동안 직접적인 비난을 삼가면서 이명박 정부에게 6·15 정신의 준수와 10·4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우회적으로 촉구함.
- 2008년 신년사설에서도 북한은 남북협력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 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음.

□ 대외관계

- 북핵문제와 미국과의 관계: 북한은 2007년 9월에 개최된 2단계 6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 공동성명 이행 제2단계 조치'에서 2007년 말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영변 핵시설 불능화작업을 완료하며,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를 약속함.
 - 그러나 불능화와 신고 작업을 둘러싼 방법 및 범주와 관련하여 북·미간에 이견이 노출되면서 당초 예정된 시한을 넘기게 됨.
 - 이와 관련, 북한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문제를 매듭 짓고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식량 및 에너지)과 정치적 보상(테러지원국 해제 등)을 얻어내고자 노력
- 중국과의 관계: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냉각되었던 북·중관계는 2007년 양국 정상급 인사들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정상적인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기상 악화로 인한 중국 식량사정의 악화는 국제곡물시장의 가격 폭등 현상과 맞물려 북한의 식량 조달 노력을 어렵게 한 것으로 평가됨.

- 일본과의 관계: 상대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갖는 후쿠다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일관계의 개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기도 했으나, 납치문제 우선 해결이라는 일본 내의 여론을 뛰어 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 후쿠다 정권은 각료회의에서 '대북경제제재 시한의 6개월 연장'을 결정 (2007.10.9)

- 러시아와의 관계: 북·러 간의 경제관계는 그동안 정체된 상태에 머물고 있었으나, 2007년 3월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4차 조·러 무역·경제·과학기술 협력위원회'를 계기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된 것으로 평가됨.
 - 주요 협력방안으로 러시아의 잉여전력을 북한에 송전하고 북한 내 전력설비를 개보수하는 사업, 나진 소재 승리화학공장의 개보수, TKR과 TSR의 연결사업 등이 논의됨.
 - 이에 따라 양국은 2007년 4월 러시아의 하산역부터 북한 나진항까지 철도구간을 현대화하기 위한 합영기업 창설에 합의함.

□ 국제시장 환경

- 원유 및 식량 가격 등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
 -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세계의 곡물 가격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바, 지난 2년(2006.1~2008.1) 사이에 밀은 2.76배, 콩은 2.16배, 옥수수는 2.29배로 폭등
 - 더욱이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세 인상, 수출량 할당, 수출 금지 등 곡물수출 제한조치를 다투어 강화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입물량 확보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

- 한편 원유의 경우,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2007년 1월 평균 배럴 당 51.75달러에서 2008년 1월 평균 87.2 달러로 68.5% 상승

나. 추진방향

- 북한은 대외경제사업의 확대 발전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가지 추진방향을 제시(2008년도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영일 내각총리의 보고문)
 - 외국과의 대외경제관계에서 ‘주체’의 확립
 - 무역활동의 다양화 및 다각화
 - 합영·합작과 경제기술 협조사업의 확대, 발전
- 내부의 원천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음.
 - ‘자력갱생’의 기본원칙 하에서 대외무역과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임.
 - 즉 정보산업시대인 21세기의 자력갱생은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하고, “인민이 덕을 보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실리”를 중시하며 양보다 질이 생명이라고 강조
 - 그러면서 21세기 자력갱생은 “세계속에 조선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세계 각국과의 경제적 교류·협력을 보다 적극 추진”하며 이를 통해 현대적 과학기술을 북한에 맞게 도입하는 것을 강조
 - 북한당국은 공장, 기업소들이 현대적 과학기술을 얼마나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자력갱생 수준을 평가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장·기업소에 대해 다른 나라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대책을 촉구 (조선신보, 2008.1.9)

- 북한은 미국 등이 대북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 시장 개혁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 (경제연구, 2008년 1월호)
 - 김정일 위원장이 “자본주의 시장을 주로 상대해야 하는 현실적 조건에 맞게 사회주의 시장을 기본으로 하던 지난날의 무역방식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
 - 이에 따라 “사회주의 시장이 무너지면서 대외 경제관계의 주된 대상이 자본주의 시장으로 바뀐 조건에서 그에 맞게 자본주의 국가들과 거래에서 최대한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무역방법을 우리 식으로 개선하는 것은 대외무역발전의 현실적인 요구”라고 강조

다. 추진과제

- 과학기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수출 증대를 제시(김영일 내각 총리 보고, 최고인민회의 제11기 6차회의, 2008.4.9)
 - 과학기술 발전과 수출 증대는 결국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류와 무역확대를 의미
 - 보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외경제교류의 새로운 전환기 마련을 제시
- 북한은 2006년부터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공장, 기업소의 개건·현대화를 중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국과의 경제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음.
 - 특히 광산 개발, 발전소 개건, 강철 생산, 펄프 제조분야 등에서 외국 기업들과 대규모 협력 사업을 추진(조선신보, 2008.4.14)

○ 수출구조의 개선

-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생산, 수출하는 것과 원자재의 수출을 점차 가공품의 수출로 전환하는 방법의 두 가지 방식을 강조
- 북한은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의 수출원칙과 관련해, “자본주의 시장에서 인기 있는” 각종 수공, 세공품과 농산물, 프로그램 수출 등을 권장
- 무역방식으로는 가공료를 받는 ‘임가공’, 수입품을 가공없이 수출하는 ‘되거리무역’, ‘물물교역’, 무관세로 수입한 원료를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보세가공무역’ 등을 능동적으로 배합할 것을 제시(경제연구, 2008년 1월호)
- 북한은 수출 증대를 위해 처음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인터넷쇼핑몰(<http://www.dprk-economy.com/en/shop/index.php>)을 개설하고, 국제상품전람회의 개최 및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마케팅에도 주력

3. 2008년 북한의 경제정책 특징

- 북한은 2008년 신년사를 통해 국내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면서 경제 부문의 과제보다 군사부문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수산업부문에 국가적 과제의 최우선순위가 있음을 강조
 - 반면에, 2007년에는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경제부문의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었음.

- 정권 수립 60주년(9.9)이 되는 2008년을 계기로 주민들에게 ‘경제강국 건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경제정책을 강조
 - 북한은 2008년 신년 사설에서 “지난해 투쟁을 통하여 경제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 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면서 “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고 역설

* 2007	11	30	15	‘	’
			100		2012
 - 이처럼 과거와 달리 2012년을 ‘경제강국건설’ 목표 달성의 해로 설정함으로써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명시한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2008년 북한의 경제부문 과제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과 같은 ‘선행부문’의 체력을 강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통해서 경제의 기초를 강화하여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북한은 이 부문에 대한 예산을 지난해 증가율보다 37.9% 더 많은 49.8%를 증액

- 북한이 2012년 경제목표를 제시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문이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재건임.
 - 따라서 변화된 환경과 현실적 요구에 맞게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다른 나라들과의 합영, 합작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으나 특별한 성과를 기록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 2008년 이 부문에 대한 예산 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한 사실에 비추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인상을 주고 있으나 국가 예산 이외에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음(조충련 월간지 조국 2008년 11월호, 북한의 리의구 국가과학원 부원장과의 인터뷰 기사).
 - 공장·기업소 소득의 2% 이상을 기술발전 사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며, 국가 외화납부액의 5% 정도를 과학기술사업이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고, 해외동포와 북한주민들로부터 과학기술발전기금을 모아서 이를 융자해 주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설치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고 밝힘.

- 2008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을 맞아 평양 현대화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임.

- 북한이 2008년도 대외 경제활성화 정책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북핵 2단계 불능화 작업 완료와 테러지원국 지정 및 적성국 교역법 해제
 - 원유 등 에너지자원 및 경공업제품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중국과의

관계 유지 및 강화 노력

- 러시아와의 나진-두만강 철도 및 나진항 현대화 사업과 같은 물류개
선 사업이 논의 단계에서 실천 단계로 진입
- 수출확대, 노동력의 해외진출, 제3국에서의 협력사업 등을 통한 대외
경제협력의 다각화와 외화수입 증대 노력
- 선진기술 및 자본유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투자환경 개선

II. 2008년 북한경제 실적

1. 대내 경제부문

가. 부문별 실적

(1)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등 선행부문

- 2008년 북한의 '선행부문'인 전력과 금속, 화학 등 일부 중화학공업, 그리고 철광, 석탄 등 일부 광물을 중심으로 생산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 전력부문

- 북한은 2008년도 재원 투입을 집중하여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건설과 기존 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 추진
 - 원산청년발전소가 조업을 앞두고 있고, 예성강발전소는 일부인 청년1호 발전소만을 완공
 - 금야강·어랑천발전소 등은 수력구조물을 건설하는 데 그침.
 - 신규 대규모 발전소 건설 이외에 수풍발전소 등 기존 발전소의 설비 현대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 화력발전소 시설 현대화의 일환으로 동평양화력발전소의 1·3호 보일러와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2·7호 보일러에 대한 보수작업도 추진
 - 화력발전소 개보수 실적에는 6자회담의 틀에 의하여 지원된 에너지 설비 및 자재가 기여

- 2008년도 북한의 전력생산 실적은 수력발전소 건설 및 개보수 성과, 6자회담 틀에 의하여 공급된 중유 및 발전 설비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 중앙방송은 2008년 상반기 동안, 전력 생산이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증산한 것으로 발표함(중앙방송, 2008.6.30).
 - 대표적인 사례로 허천강발전소, 장진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 강계청년발전소 등의 수력발전의 증가를 제시

□ 석탄 및 광업부문

- 생산 증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석탄의 생산 실적은 발표 매체와 시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10% 전후의 생산실적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대북 교역업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최근 북한에서는 북한산 석탄의 구매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함.
- 북한의 대 중국 수출증가의 상당 부분이 철광을 비롯한 광산물의 수출 증가에 의한 것이며, 북한의 금속 생산이 증가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철광을 비롯한 광업의 생산도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2008년 1~11월간 광, 슬랙, 회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41.9%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 품목의 수출단가 증가율 37.5%를 상회하는 것임.

□ 금속부문

- 금속부문에서는 기계부문과의 연계 하에서 선행부문 및 경공업부문의 설비 개선·현대화, 건설용 자재·설비 등에 필요한 철강 생산에 역량을 집중
 - 특히 ‘주체철 생산 방법’¹⁾과 기존 생산 잠재력을 바탕으로 금속공업부문의 자립성과 주체성 강화에 주력

- 철강 생산 증대를 위해 김책제철, 황해제철, 천리마제강 등 주요 제철소들에서는 기술 개선을 적극 추진(중앙방송, 2008.7.15)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는 대형 산소분리기 건축 및 설비 조립을 완료하고 종합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속조괴기 건설에 주력
 -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는 회전로 1기 보수 완료, 소결로·석회배소로·용광로 등의 대보수 추진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는 ‘超高電力 전기로’를 완공하는 등 전기로 기술개선 사업을 추진

- 비철금속부문에서도 대중적 기술혁신운동, 신기술 도입, 유색금속 및 희유금속 품종수 증대, 제련 실수율 제고 등을 위해 동 부문의 생산 정상화 및 기술개선사업을 모색
 - 그러나 비철금속부문은 철강 생산력 제고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설비의 개선·현대화를 위한 정책적 추진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평가

1) ‘주체철 생산방법’이란 코크스탄의 수입 부담 완화를 일환으로 매장량이 풍부한 무연탄을 이용하는 북한 자체 개발의 제철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생산성과 품위가 낮고 생산원가 면에서도 현저히 불리하다는 단점을 보유.

- 금속부문의 생산은 전력, 철광 등의 공급 증가로 철강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조선중앙통신이 금속공업성 국장의 말을 인용하여 발표(2008.12.21)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철광석 생산이 전년 대비 73% 증가했으며, 철강재 생산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 증가

□ 기계부문

- 기계부문에서는 주로 중점분야인 선행부문, 경공업 및 일부 연관산업부문에 필요한 개건·현대화 설비 생산에 주력
 - 특히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따르는 발전 설비, 석탄 및 금속 원광 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광산용 설비, 방직설비 등의 생산에 주력
- 기계부문의 생산은 제조업부문의 전반적인 가동률 상승과 철강 등 금속 원자재의 공급 증가, 발전설비 개보수 등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전년보다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중앙방송은 2008년 상반기 기계부문의 생산이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하였다고 보도(2008.8.28)
 - 주요 내용으로는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전기로 현대화공사를 위한 설비를 생산하고,
 - 원산청년발전소, 예성강발전소, 영원발전소 등 주요 발전소 건설장에 대용량 수력터빈과 발전기·변압기 등 발전설비 생산·공급하였으며,
 - 용성기계, 낙원기계, 희천공장기계 등이 압축기, 굴착기 등 기계설비와 공작기계 생산을 증대한 점을 제시함.

□ 화학·건재부문

- 화학부문에서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비날론 생산공정 개선·현대화가 주요 실적으로 보도되었음.
 - 조선신보(2008.2.20)는 1996년 생산이 중단된 동 기업소가 2000년 이후 생산 재개 및 생산능력 확장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2008년 중에는 알데히드·초산·에탄올공정 개선보수와 함께 암모니아공정 1단계를 개선하였다고 보도

- 건재부문에서는 프랑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의 현대화 사업이 주요 성과로 보도되었음.
 - 상원세멘트는 당초 합영계약을 체결하였던 ‘오라스폼건설회사’를 인수한 프랑스 ‘라파즈’사 지원 하에 2010년 완공 목표로 화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하고 소성로를 비롯한 모든 설비를 일신할 계획
 - ‘라파즈’사측은 2008년 9월 현재, 상원세멘트에서 이미 시멘트가 생산중이며, 2010년까지 생산설비 현대화로 연간 시멘트 생산량을 300만톤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2008.9.24)

- 건재부문은 평양시의 주택 건설 등에 따른 수요 증가와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천내리세멘트공장 등을 중심으로 시멘트 생산이 상당 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의 건설건재공업성 박영수 부국장은 시멘트 생산량이 2008년 1~9월 동안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하였으며, 특히 생산공정 보수로 생산능력이 강화된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에 역량을 집중하여 시멘트 생산의 ‘결정적’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중앙방송, 2008.10.2)

□ 수송·통신부문

- 수송부문에 있어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러시아와의 협력 하에 진행되고 있는 ‘나진-핫산’간 철도 현대화 및 나진항 개발 사업임.
 - ‘나진-핫산’간 철도 개건·현대화 사업은 광궤와 보통궤를 병설하는 혼합선 부설공사로 완공 시 연간 400만 톤의 수송능력(10만 개의 컨테이너)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됨.
 - ‘나진항 개건사업’은 3단계로 하고, 1단계는 2010월 10월 말까지 완료하며 ‘기존 노후설비의 제거’, ‘컨테이너 크레인 등 새 설비의 반입’, ‘부두 시설의 건설’, ‘도크 확장’ 등을 1단계로 추진(조선신보, 2008.10.6)
- 나진-핫산간 철도 현대화 및 나진항 개발 사업은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 협의를 지속해 왔으나 러시아 측의 자금부족 등으로 지연되어 오다가 2008년에 실질적으로 추진되었음.
 - 북한과 러시아는 2008년 4월 24일 ‘나진-핫산(55km)간 철도 현대화사업’에 대한 「북·러 합작회사 설립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주요 합의 내용은 ‘나진-핫산’구간 철도 현대화와 나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등임.
 - 8월 6일에는 ‘나진 국제짐함수송합영회사(북-러 합영기업)’와 ‘동해철도련운회사(북한 철도성 산하)’간 회담을 개최하고, 「나진-두만강 철도 임대계약」을 체결(조선중앙통신, 2008.8.7)
 - 10월 4일에는 ‘나진-핫산’간 철도 현대화 및 ‘나진항 개건사업’ 착공식을 나진시에서 진행(조선중앙통신, 2008.10.4)
- 수송부문의 실적에 대해서는 민주조선이 2008년 상반기 동안 철도화물 수송량이 전년 동기대비 3% 증가하였다고 보도하는 등 소폭 성장했다고 보도(2008.7.19)

- 정보통신부문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해외 선진기술 도입에 관심을 두었을 뿐 두드러진 동향은 없음.
 - 5월에 유럽기업 대상으로 북한 내 IT산업기지 시찰 행사 진행, 6월 17~20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2008 국제정보통신박람회'에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센터(PINTEC)' 소속 IT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참관단을 파견(조선신보, 2008.6.17)

(2) 농·림·축·수산업부문

- 농업부문의 식량생산은 양호한 기상조건, 비료 등 농자재 공급의 소폭 증가 등으로 남한으로부터의 비료 지원 중단에도 불구하고 2007년 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한국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08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쌀 186만 톤, 옥수수 154만 톤, 감자 51만 톤, 밀·보리 등 잡곡 40만 톤 등 총 431만 톤으로 전년보다 30만 톤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임업부문은 선행부문 우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나무 생산에 주력함으로써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자강도 강계·송원·희천·동신·성간 임산사업소와 양강도 유평·백암 임산사업소 등에서 통나무 생산에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축산부문에서는 2007년과 달리 축산기지의 건설이나 능력 확장공사보다는 생산정상화에 역점을 두었으나, 특별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예년과 마찬가지로 돼지, 염소, 닭, 오리 등의 사육을 독려하는 가운데 특히 곡물 사료 없이 기르기 용이한 토끼 사육을 전군중적으로 실시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평가됨.

- 수산업부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투자 부족, 기술 낙후, 유류 부족 등으로 인해 출어일수가 크게 정체된 가운데 기존 양어장 관리가 크게 개선되지 않음으로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3) 경공업부문

- 연초 북한당국은 ‘인민생활 향상’이 단순히 ‘정치적 미사여구’가 아닌 ‘체협’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경공업부문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경공업성 부상 허택권의 조선신보와의 신년 인터뷰, 2008.1.3)
- 김정일은 2008년 1월 하순, 자강도 장강군 장강버섯공장 및 장강식료공장 등에 대한 현지지도를 시작으로, 식료품 및 생필품 생산 증대를 독려하는 등 경공업부문에 대해 높은 정책적 관심을 표명(조선중앙통신 보도 종합)
-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직물, 신발, 기초식품 등 1차 소비재 생산에 주력하면서, 경공업 공장들의 현대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임.
 - 평양방직공장, 원산방직공장, 사리원방직기계공장 등 섬유·의류공장을 필두로 평양일용품공장, 신의주신발공장,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등 생필품 공장 그리고 종이, 비누, 장공장 등의 현대화에 관한 보도들이 있었음.
- 2008년 북한의 경공업부문 생산은 생필품의 공급 증대 정책, 일부 공장의 현대화, 자체 생산 및 외부로부터의 공급에 따른 원부자재 공급 증대 등에 힘입어 신발, 의류, 기초식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경공업성은 6월 말 현재 방직, 신발, 편직 등 인민소비품 생산이 전년 동기대비 1.4배 증가하였다고 선전(중앙방송, 2008.7.24)
- 경공업성 신발공업관리국 산하 각 지역 신발공장의 신발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1.5배로 증가하였다고 발표(중앙방송, 2008.10.25)
- 남한에서 공급된 경공업 원부자재가 섬유, 신발, 비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신발생산 등 경공업 생산 증대에 상당한 기여한 것으로 추정

(4) 과학기술부문

- 김정일이 2008년 초, 2007년 10월에 개최된 바 있는 ‘제18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들을 시찰하는 등 과학기술부문을 독려하는 가운데, 북한은 과학기술 발표회를 연이어 개최하였음.
 - 북한은 2008년 9월 말 현재, 모두 18개에 이르는 경제·과학기술 발표회와 전시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연합뉴스, 2008.10.9).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깝게 증가한 것임.
- 3~5월에는 기계설계부문 경연 및 전시회, 콩 생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꿀벌생산에 관한 강습회 및 양봉기구전시회, 평양시 건설지도국 건설장비 및 기계공구 전시회, 국토환경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새 기술전시회, 기계역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23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이 개최됨.
 - 기계진동 연구부문 관계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5월에 개최된 기계역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에서는 기계설비들의 진동분석과 관련한 논문 70여 편이 발표됨.

- 7~8월에는 전국 농기계전시회와 기술혁신발표회, 대학생 정보과학기술 전시회, 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평양시 '8.3인민소비품', 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개최됨.
- 10월 27~29일에는 '전국 정보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를 개최
 - 정보학부문 발표회에서는 정보검색 체계, 자료기지 체계, 컴퓨터망 체계, 자료보안기술, 정보수요 조사분석 등에 관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도(연합뉴스, 2008.10.9)
- 11월 4~5일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는 '전국고려약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조선중앙통신, 2008.11.6)
- 북한이 이처럼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발전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을 30% 수준으로 증대'라는 제3차 5개년계획(2008~2012)의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과학기술부문의 성과가 공장·기업소의 기술개건과 생산 정상화 부분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강국'의 실현을 이끌어 낼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가위밥 견실토리생산법(박천견직공장)', '가정용 석탄 대용연료(평양시 무역관리국)', '숫자식 벨트콘베아 자동저울', '석재가공용 전자석타격기(김책공업종합대학)', '덜개식 일산화탄소 가스정화체(과학원 환경공학연구소)' 등 실용적 발명의 성과
 - 국가과학원 전기연구소,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등이 전력생산 지휘 프로그램 및 송전계통 안정 보호 장치를 개발하여 북창화력발전소, 평양화력발전소의 생산 정상화에 기여

(5) 보전·수도건설·국토관리사업부문

- 북한은 ‘평양시 개건·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김일성 생일 100주년)까지 평양시에 10만 세대(연평균 2만 세대)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2008년도 주택 건설 계획을 수립·추진함(조선신보, 2008.1.18).
- 7월부터 평양시 건설지도국 산하 건설기업소는 1950년대 전후 복구시기에 건설된 만수대거리 주택을 허물고 1,000세대 규모의 주택건설공사를 추진(조선신보, 2008.11.13)
- 평양시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인민생활 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개건·보수를 2007년에 이어 지속 추진
 - 상하수도, 체신망 등 평양시 하부구조 정비·보수
 - 중앙동물원, 류경호텔, 양각도유원지, 대동강 강변(대극장-충성의 다리구간) 등 70여개 대상들의 개건·보수를 추진(조선신보, 2008.1.18)
- 창광봉사관리국 주도하에 외장재, 간판, 조명 등 외관 단장과 비품교체 및 홀 확장 등 평양시 ‘창광음식점거리’ 개건·보수공사를 추진(중앙방송, 2008.5.20)
- ‘쿠웨이트 아랍경제개발기금(Kuwait Fund Arab Economic Development)’²⁾이 평양의 하수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북한에 2,17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VOA, 2008.11.19)³⁾

2) 동 기금은 연간 운용액 4억 달러 규모의 개발원조기관으로 1961년 쿠웨이트 정부가 아랍국가에 대한 개발용자와 기술원조를 목적으로 설립, 1974년 모든 개발도상국으로 대상을 확대함.

3) 동 기금 지원과 관련하여 11월 19일테 북한의 리강희 도시경영성 부장과 쿠웨이트 기금측 헤삼 알 외카안 사무차장은 양측간 협조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음(조선중앙통신, 2008.11.19).

- 이는 2002년 3월 평양시 상수도 개건사업을 위해 2,170만 달러(연이율 2%, 상환기간 24년)를 도입한 이후 두 번째 차관임.
- 지방도시 및 농촌에서는 국토관리사업 차원에서 주요 도로의 개건, 강·하천 정리, 제방공사 등이 균중적 운동으로 추진되었으나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6) 상업·유통부문

- 인민생활 향상의 차원에서 상업 및 유통시설의 현대화, 각종 생필품 전시회의 개최 등이 이루어졌음.
 - 평양구두공장에서 생산되는 ‘날개’ 상표의 구두가 참신한 디자인으로 구매자들에게 인기리에 판매(조선신보, 2008.9.11)
 - 평양시 중구역 중성동에 위치한 ‘인버터센터’에 ‘전력전자기술전시장’을 개설하고, 인버터(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역변환장치) 기술 보급의 일환으로 공장·기업소 기술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품 판매를 실시(조선신보, 2008.2.28)
 - 11월 4~7일에는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제6차 ‘전국 조선옷 전시회’(30여 개 피복제작 단위들이 800여 점의 조선옷 출품)를 개최(조선신보, 2008.11.10)
- 북한의 상업·유통은 인민생활 향상 노력에 따른 경공업제품 생산 증가 및 봉사부문 현대화에 영향을 받아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은 ‘대외유통(무역)’ 강화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제11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 네덜

란드, 독일 등 18개 국가에서 기계, 전기 및 전자설비,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경공업제품, 식료품 등을 출품

- '제4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는 40여 개의 북한 기업을 포함 중국, 러시아, 덴마크, 독일, 싱가포르 등 15개 국가, 111개의 기업 등 총 150여개 기업이 참가하여 공작기계, 전기 및 전자설비,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일용제품, 식료품, 경공업제품 등을 전시(조선신보, 2008.9.29).

나. 대내 생산의 특징

(1) 상반기 생산 실적의 증가

- 2008년에는 상반기를 중심으로 전력, 석탄 및 광업 등 기초부문의 생산 증가와 이에 따른 제조업부문 전반의 가동률 상승, 그리고 평양시의 주택 건설에 의한 건설 활동 증가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년보다 생산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됨.
- 전력부문은 개보수 등에 따른 수력발전의 증가와 6자회담 중유 및 발전설비 지원 등에 따른 화력발전의 증가로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10% 이상 생산량이 증가
- 석탄과 철광석을 중심으로 한 광업부문의 생산 역시 증가했으며, 철강을 중심으로 한 금속과 발전소 설비 및 산업설비를 중심으로 기계, 그리고 시멘트를 중심으로 한 화학·건재 공업의 생산도 증가
- 경공업부문은 섬유 등의 자체 생산 증가 및 남한의 지원 등에 따른 원부자재 공급 증가로 의류와 신발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통 규모도 증대
- 건설실적은 평양시 주택건설과 상하수도 현대화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

(2) 생산 실적 관련 북한 매체의 보도

□ 평양방송의 보도 내용: 경제계획의 초과달성

- 평양방송은 올해 상반기 ‘인민소비품’ 생산과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등 ‘인민경제 선행부문’을 비롯한 경제 각 부문에서 당초 계획을 초과해 달성했다고 선전함(2008.7.3).
- 평양방송은 “연초부터 생산 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 올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상반기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했다”면서,
 - 소비재 생산을 담당하는 편직(117%), 비단(116%), 방직기계(105%), 일용공업관리국(104%) 등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
 - 또한 평양화장품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함흥영예군인(상이군인)수지일용품공장, 경련애국사이다공장에서도 계획보다 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했다고 주장
- 동 방송은 전력은 105.9%, 석탄은 광산별로 101.7~107.2%, 철도수송은 100.3%, 자동차수송은 112.2%, 수출입 화물선수송은 109.1%, 국내 화물선수송은 112.1%, 무역항 통과량은 106.1% 등의 초과달성 기록을 세웠다고 역설

□ 민주조선의 발표 내용

- 2008년 상반기 생산실적이 호전된 사실은 내각의 기관지인 민주조선(2008.7.19)을 통해서도 거듭 강조되고 있음.
 - 북한 내각은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발전량, 시멘트,

작물, 섬유, 수산물 등을 비롯한 ‘중요 지표’의 생산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2배 성장했다고 주장

- 민주조선에 따르면, 북한의 2008년 상반기의 발전량이 전년 동기대비 117%, 석탄 생산량은 107%, 철도화물 수송량은 103%로 증가했고 압연강재 생산량은 2.5배로 집계됨.

(3) 식량생산 실적의 증가

- 세계식량기구(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2008년 곡물 생산량을 약 421만 톤(조곡 기준)으로 추정함(2008.12.8).
 - FAO는 “북한은 올해 곡물 성장기에 날씨가 좋았지만 비료와 연료 부족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예상보다 낮은 곡물생산량의 원인을 설명
- 반면에 한국농촌진흥청은 2008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전년보다 30만 톤 증가한 431만 톤(정곡 기준)으로 추정함.
 - 쌀 186만 톤, 옥수수 154만 톤, 감자 51만 톤, 밀·보리 등 기타 잡곡 40만 톤 등
 - 주요 증산 요인으로 가을 일조량의 풍부 등 기상조건의 호조로 쌀 생산량이 22%(33만 톤) 증가한 것을 들었으며 옥수수는 비료 부족으로 소폭(5만 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함.
- 북한의 식량생산 및 도입 추이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1〉 북한의 식량 총공급량(생산 및 도입량) 추이

(단위: 만 톤)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생산량(A)	345	369	349	389	422	359	395	413	425	431	454	454	401
생산량(B)	379	238	274	439	395	320	411	431	447	461	516	470	380 (300)
도입량(C)	96	105	163	111	107	123	140	138	81	69	126	20	55
총공급 (A+C)	441	474	512	500	529	482	535	552	506	500	580	474	456
총공급 (B+C)	475	343	437	550	502	442	551	569	528	530	642	490	435 (355)

주: 생산량의 통계기준은 2006/07년(2006.11~2007.10)이나 도입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 편의상 2007년으로 하였음.

출처: 곡물생산량(A)은 통계청, 생산량(B)은 FAO의 통계이며, 도입량은 북한의 연도별곡물(HS 10)도입 실적(KOTRA, 2008, p. 18)과 남한이 직접 지원한 곡물(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 연도)을 합한 수치임.

2. 대외 경제부문

가. 대외무역 실적

(1) 남북교역

- 2008년 중 남북교역은 18.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
 - 남북교역은 신정부의 출범 이후 증가율이 하락하여 북한의 대남한 반입(북←남)액은 9.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8% 감소하였고 반출(북→남)액은 8.9억 달러로 16.1% 증가

〈표 2〉 최근 남북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반입(북←남)	715(62.9)	830(16.1)	1,033(24.5)	932(-9.8)
반출(북→남)	340(31.8)	520(52.9)	765(47.1)	888(16.1)
교역수지	-375	-310	-268	-44
교역총액	1,055(51.4)	1,350(28.0)	1,798(33.2)	1,820(1.2)

주: ()내는 대남한 반출입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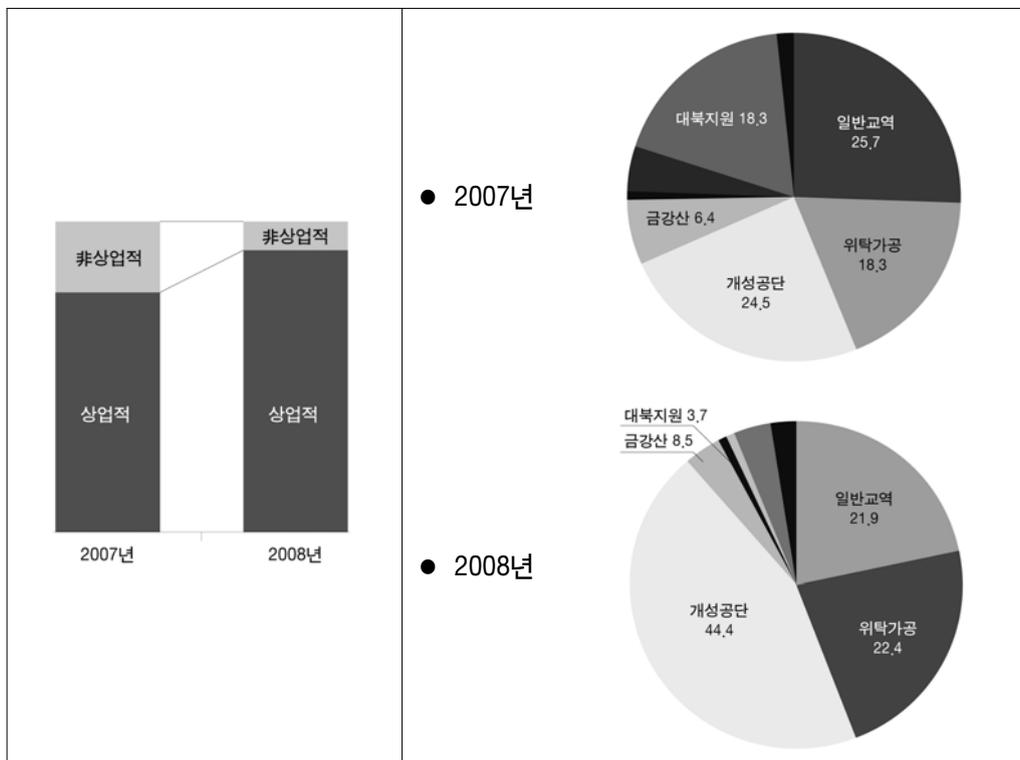
출처: 통일부(www.unikorea.go.kr).

- 남북교역을 거래내용별로 보면 상업적거래(교역+협력사업)는 17.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9.6% 증가한 반면 비상업적거래(지원)는 1.1억 달러에 그쳐 70.5% 감소
- 상업적거래 가운데 위탁가공교역(4.1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24.8% 증

가)과 개성공단사업(8.1억 달러, 83.2% 증가)이 크게 증가한 반면, 일반교역은(4.0억 달러, 13.4% 감소) 감소

- 비상업적거래 가운데 인도적 지원은 6천 7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9.6% 감소하였으며, 그 외 6자회담에 따른 에너지지원 등 4천 1백만 달러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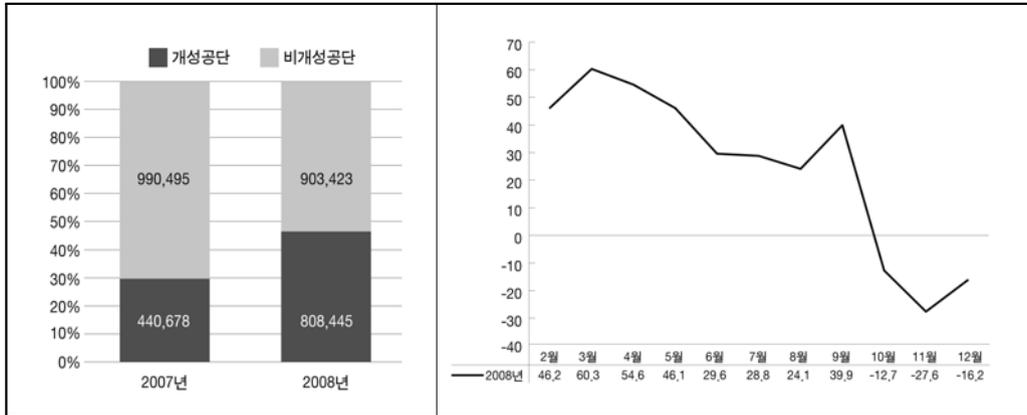
〈그림 1〉 거래유형별 구성비 변화



출처: 통일부(www.unikorea.go.kr).

- 2008년 월별 남북교역을 보면 5월부터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 지속
 - 상업적 거래 증가율은 하반기부터 둔화, 10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
 - 그럼에도 개성공단 및 위탁가공 등 상업적 거래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2008년 남북교역은 전년대비 1.2% 증가

〈그림 2〉 상업적거래내 개성공단 비중 및 월별 상업적거래 증가율 변화



출처: 통일부(www.unikorea.go.kr).

- 2008년 남북교역 가운데 개성공단사업은 8.1억 달러로 전체 남북교역의 44.4%를 차지(2007년의 경우 23.4%)

〈표 3〉 개성공단의 생산 및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생 산	15	74(393.3)	185(150.0)	229(38.6)
수 출	0.9	20(2122.2)	40(100.0)	34(-5.3)
반입(북←남)	157	223(42.0)	339(52.3)	518(52.8)
반출(북→남)	20	76(280.0)	101(33.2)	290(181.7)
반출입 합계	177	299(69.0)	441(47.4)	808(83.2)

주: 1)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2) 생산과 수출은 11월 말 기준.

3) 2009.1월 7일 현재 가동 업체 수는 93개, 북측 근로자수는 38,931명.

출처: 통일부(www.unikorea.go.kr).

〈표 4〉 부문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항 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상 업 적 거 래	교 역	일 반 교 역	210(22.4)	304(44.9)	461(51.7)	399(-13.4)
		위탁가공교역	210(19.1)	253(20.6)	330(30.4)	408(23.8)
		교역 소계	420(20.7)	557(32.7)	791(42.0)	807(2.0)
	협 력 사 업	개성공단사업	177(323.9)	299(69.0)	441(47.4)	808(83.2)
		금강산관광사업	87(108.4)	57(-34.9)	115(102.5)	64(-44.4)
		기타경제협력사업	6(8.3)	16(149.1)	12(-23.2)	20(66.7)
		경공업협력	-	-	73(-)	12(-83.6)
		협력사업 소계	270(202.6)	372(37.3)	641(72.3)	904(41.0)
	상업적 거래 합계		690(57.9)	929(34.6)	1,432(54.2)	1,712(19.6)
비 상 업 적 거 래	지 원	민 간 지 원	243(34.8)	408(67.8)	250(-38.6)	67(-73.2)
		정 부 지 원	122(56.1)	12(-90.4)	79(574.2)	0(-99.5)
		지원소계	365(41.2)	420(14.8)	329(-21.5)	67(-79.6)
	기 타	사회문화협력 에너지지원 등	-	-	37(-)	41(10.8)
	비상업적 거래 소계		365(41.2)	420(14.8)	366(-12.6)	108(-70.5)
총 계		1,055(51.4)	1,349(27.8)	1,798(33.2)	1,820(1.2)	

주: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출처: 통일부(www.unikorea.go.kr).

(2) 북 · 중무역

- 2008년 1~11월 중 북 · 중무역은 23.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9.3% 증가
 -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7.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2.6% 증가, 수입은 16.0억 달러로 27.9% 증가

〈표 5〉 북한의 대중국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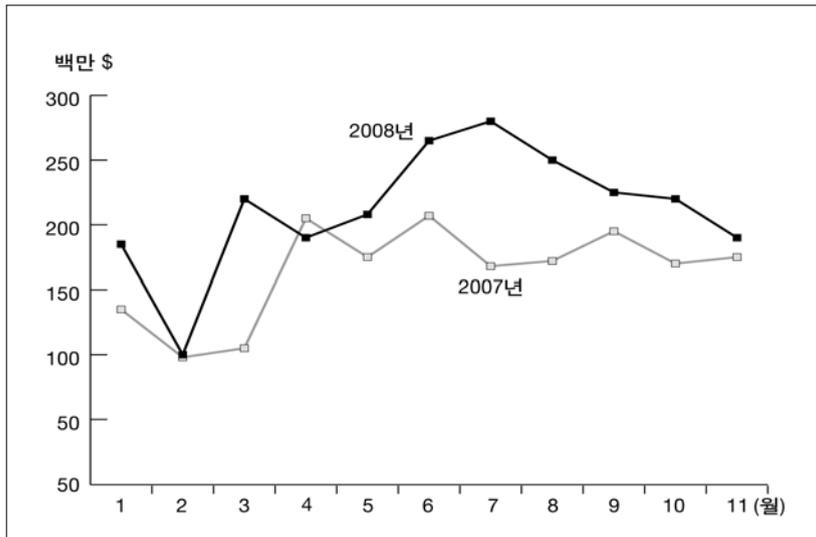
	2005	2006	2007	2008.1~11월
수 출	497(-14.7)	468(-5.8)	582(24.3)	706(32.6)
수 입	1,085(36.5)	1,232(13.6)	1,392(13.0)	1,602(27.9)
무역수지	-588	-764	-810	-896
무역총액	1,582(14.9)	1,700(7.6)	1,974(16.1)	2,308(29.3)

주: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한편 2008년 월별 무역 현황을 보면 무역량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음.

〈그림 3〉 북·중무역 월별 추이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08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광물성 연료(주로 무연탄)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냄.

〈표 6〉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05	2006	2007	2008.1~11월
1	광, 슬랙, 회	92(56.7)	118(28.3)	164(38.5)	205(41.9)
2	광물성 연료	112(111.8)	102(-8.8)	170(66.1)	194(19.2)
3	철 강	72(-3.8)	35(-51.1)	45(28.2)	76(91.4)
4	의 류	58(18.8)	63(8.6)	60(-4.7)	64(28.8)
5	어 류	92(-64.6)	27(79)	30(-30.8)	36(36.3)
총 계		497(-14.7)	468(-5.8)	582(24.3)	706(32.6)

주: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이처럼 광물자원의 수출증가는 북한의 생산 환경 개선 및 중국의 대북 투자 급증,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중국의 대북투자가 2004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70%가 무산 철광, 용등 탄광, 혜산 동광, 평양시 몰리브덴 광산 등 지하자원 개발에 투입되고 있음.
 - 대중국 수출 1위인 광, 슬랙, 회(2008년 1~11월 중 대중국 수출단가 전년 동기대비 47.5% 상승), 2위인 광물성 연료, 3위인 철강(동기간 대중국 수출단가 전년 동기대비 156.6% 상승)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수출증가를 가져옴(단, 광물성 연료 제외).
- 2008년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은 연료·에너지(주로 원유), 기계

- 류 등 산업자재와 운송수단, 인조필라멘트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원유는 가장 큰 수입품목으로서 수입단가는 크게 상승하였으나 수입량은 큰 변화가 없음.

〈표 7〉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05	2006	2007	2008.1~11
1	광물성 연료	286(39.8)	347(21.6)	402(15.7)	551(50.7)
2	보일러와 기계류	77(94.7)	83(7.8)	104(25.0)	129(39.7)
3	전기기기, 장비	57(23.6)	98(72.5)	69(-29.0)	88(41.6)
4	차량 및 부속품	28(55.1)	28(-1.3)	54(92.1)	58(17.4)
5	플라스틱류	29(60.5)	39(33.7)	52(35.4)	50(2.7)
총 계		1,085(36.5)	1,232(13.6)	1,392(13.0)	1,602(27.9)

주: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3) 북·일무역

□ 일본의 대북경제제재가 지속되면서 2007년 북·일무역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92.1% 감소

- 그러나 최근에는 중단됐던 대북 수출이 제한적으로 다시 재개되고 있음.
 - 제재의 대상이 아닌 중고 자전거 등의 수출액 증가 추세(닛케이신문 2008.1.21)

〈표 8〉 북한의 대일본 무역 현황

(단위: 천 엔, %)

	2005	2006	2007
수 출	14,403(-18.3)	8,872(-38.4)	0(-100)
수 입	6,883(28.6)	5,088(-26.1)	1,096(-78.5)
무역 수지	7,520	3,784	-1,096
무역 총액	21,286(-21.9)	13,960(-34.4)	1,096(-92.1)

나. 대외경제협력 실적

(1) 중국

- 중국과의 2008년 대외협력사업 실적은 다음과 같음.
 - 2008년 3월, 북한 평양조명기구공장은 중국 상해아명전등공장유한공사와 합영으로 평양아명조명합영회사를 설립, 절전형 조명기구 등을 생산(조선중앙통신, 2008.2.27; 흑룡강신문, 2008.4.12)
 - 2008년 4월, 북한 조선연초수출입회사는 중국 길림성담배공업유한회사와 합영(51:49)으로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담배를 생산
- 북·중,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리협력을 강화(조선중앙통신, 2008.10.29)
 - 북한 기상수문국 대표단과 중국 수리부 대표단 사이에 압록강, 두만강의 수문사업협조에 관한 회담을 개최
 - 중국은 매년 북한에 기상관측 장비를 지원하는 등 기상과 재해예보를 위한 대북협력을 강화

- 중국 기상국은 세계기상기구(WMO)의 긴급 자연재해 협조계획에 따라 북한 기상수문국에 관련 설비를 기증(조선중앙통신, 2008.9.4)
- 북·중, 임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비망록 교환(2008.9.13)
 - 이를 통해서 향후 삼림정책, 법규, 기구제정, 삼림경영, 자원관리 및 산지종합개발, 방화, 조림기술, 병충해방제, 야생물 및 습지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
 - 양국은 그간 경제과학기술문화협조협정의 테두리에서 제한적 범위의 임업협력을 해왔지만 본격적인 임업협력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중국, 북-중-러 3국 접경지역에 내륙 항구 건설을 추진
 - 길림성 정부가 두만강 개방합작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팡촨(방천)에 내륙 항구를 건설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중국교통보, 2008.10.8)
 - 더불어 중국과 북한은 변경구역의 도로와 항구를 일체화시키고 수출 가공 및 보세물류단지 건설 등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구 추진을 본격화(연합뉴스, 2008.8.25)
- 중국,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대형 무역상가를 개설(2008.9.8)
 - 제1회 장백변경무역상품교역회에 맞춰 이우상품타운이 장백통상구 부근에서 정식으로 개설
 - 총 3만 5천km²의 부지에 세워진 상가에는 베이징, 산둥, 장쑤, 저장성 등에서 온 56개의 외지기업이 입주,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북한에서 수요가 많은 경공업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음.
- 북한의 상공회의소 초청으로 홍콩 제조업체 대표단이 북한 방문 및 투자 협의

- 19명으로 구성된 홍콩 제조업체 대표단이 9월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상공회의소측과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 양측이 공동으로 상품전시회를 개최하고 경제활동 및 교류를 활성화 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됨(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2008.9.4).

(2) 러시아

- 철도, 항만 등 인프라분야에서의 북·러 협력이 증대
 -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 개건 착공식 개최(2008.10.4)
 - 북·러간 나진-하산 철도 개건과 나진항 개선을 위한 합영회사 설립
- 북한은 중장기적으로 나진항 개선과 나진-하산 철도 개건 사업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륙간 국제수송로 창설로 이어지길 기대(조선신보, 2008.10.6)
 - 나진과 하산을 잇는 철도 개선사업이 완성되면 연간 400만 톤의 수송 능력과 연간 10만개의 컨테이너 수송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
 - 나진항의 정비를 포함한 개보수 공사비용은 약 440억 엔으로 전액 러시아가 조달하기로 합의
 - 이 사업은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를 잇는 철도루트를 확보하려는 러시아와 외국 자본으로 인프라를 정비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일치

(3) EU

- 과거 EU기업들의 제조업 진출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2002년 이후 금융, 실물, 자원, 서비스, IT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음.

- EU기업들은 6자회담이 진전을 보이고,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도 이뤄지면서 북한이라는 잠재적인 시장에 대한 관심 증대
 - EU기업의 대북투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들은 특히 북한 IT분야 종사자들이 기술 수준이 높고, 애니메이션,
기업행정 응용프로그램, 웹사이트 제작 등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어
유럽기업들의 아웃소싱 상대로서 큰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
- 2008년 이뤄진 북·유럽간 대외협력사업은 아래와 같음.
- 2008년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5.12~15)에서는 유럽기업의 단독부
스인 EBA 부스(18개 유럽기업 참여)가 처음으로 개설
 - * (Felix Abt) 2005 4
 - (European Business Association: EBA)
 - , , , , , , DHL
 - 가
 - 제4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9.22~25)에서도 23개 유럽기업이
참여하여 대북 진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여줌.
 - 2008년 3월 개성공단 진출 유럽기업 1호인 프레틀이 자동차 부품생산
공장을 착공
 - 스위스, 네덜란드, 스페인 기업들이 9월 17일부터 10월 4일까지 북한
을 방문해 휴대전화 게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RFA, 2008.10.8)
 - 베네룩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 상공회의소 대표단이
9월 30일 북한을 방문해 IT분야 투자를 협의
- 유럽기업의 대북진출은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전개해온 북한의 투자 유

치 다각화 노력의 결과물로 분석됨.

- 주목할 대목은 베네룩스 3국 상공회의소 소속 기업들의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중국 기업과 함께 북한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 이 상공회의소는 베네룩스 국가들의 북한 진출을 도울 수 있는 중국 기업들을 찾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음(2008.9.23).

(4) 일본

- 북·중, 북·러, 북·유럽 경제관계 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일관계는 2008년에도 경색 국면을 이어감.
- 일본 정부는 2008년 10월 13일 기한을 맞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6개월 연장
- 일본 정부는 특히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의 재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제재조치를 연장

* 2006 10

2007 4 10 , 2008 4

(5) 기타 국가

- 이집트 이동통신회사인 오라스콤 텔레콤이 북한에서 휴대전화 상용서비스를 추진(블룸버그통신, 2008.3.12)
- 오라스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최대 이동통신회사로 2008년 1월 31일 북측으로부터 25년간 휴대전화 상용서비스 사업권을 획득

- 오라스콤은 10월 27일 세계적인 통신회사인 핀란드의 노키아와 협력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북한의 휴대전화 사업에 노키아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짐(RFA, 2008.11.14).

- 오라스콤사는 2008년 5월 음성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2월 정식 개통하였으며, 또한 상원세멘트합영회사를 세워 2010년 완공 목표로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현대화에 착수

* (Orascom Construction Industries: OCI) 2007 7
1 1,500 , 50% ,
Lafarge SA (RFA, 2008.9.25)

○ 쿠웨이트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설립한 쿠웨이트아랍경제개발 기금 2,170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약속(쿠웨이트아랍경제개발기금 대표단 평양방문 성명, 2008.11.18)

- 북한에 제공되는 차관은 평양시 위생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평양의 하수 처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환경과 공중보건 개선에 기여

- 북한과 쿠웨이트는 10월 15일 항공로에 관한 협정 체결(조선중앙방송, 2008.10.20).

* , , 3 , 가
60 9, 10 8

○ 북한 건설노동자의 리비아 재 파견 추진

- 북한은 수년 전 리비아에서 철수시켰던 건설노동자들을 다시 파견하기 위해 정부간 접촉(RFA, 2008.10.17)

- 북한과 리비아는 2006년 인력진출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

아, 유럽과 중동 국가의 기업들은 자원 확보와 기간산업 선점, 시장확대 가능성, 저렴한 인건비 활용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대북 투자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외국기업과의 투자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음.
 - 다만 오라스콤 텔레콤의 휴대전화 상용서비스가 12월부터 가동됨.
- 북한은 해외로부터 선진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일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
 - “자력갱생의 원칙은 과학기술이 뒷받침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진국과의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 강화를 촉구
 - 특히 외국기업과의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합영·합작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한 공장의 현대화 추진을 기대

Ⅲ. 2008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09년 전망

1. 2008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가. 남북경협외의 파급효과

(1) 자원의 이전

□ 자원의 이전 경로와 규모

- 남북경협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상당한 경제적 자원이 이전되는 통로가 되고 있으며, 이전경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단순 물자교류에서 발생하는 남한의 수입초과 즉, 북한의 흑자와 위탁가공무역에서의 위탁가공료 수입
 - 단순교역에서의 흑자규모는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부터 2억 달러를 초과하여, 2007년 약 4.2억 달러, 2008년 약 3.4억 달러에 달했음.
 - 북한의 위탁가공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에는 0.9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표 9〉 북한의 대남 일반교역 흑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일 반 무 역	46	91	163	131	128	168	260	421	335

출처: 통일부(www.unikorea.go.kr).

- 둘째, 민간기업의 대북투자에 따른 설비이전
 - 남한 기업이 평양 등의 임가공 사업을 위해 반출하는 설비 등으로, 통상적인 직접투자에 해당되는 개념임.
 - 이 때 주의할 점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위한 설비투자 등은 남북 간의 경계를 넘어가기는 하지만 북한으로 경제적 자원이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 기업 간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시킴.
 -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부분을 제외할 경우 그 규모는 크지 않음.

- 세 번째, 정부간 협력사업을 통한 자원 이전
 -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을 위하여 남한에서 북한으로 관련 자재나 설비 등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는 통일부의 남북교역 통계에는 ‘기타 경제협력’으로 집계됨(2007년의 경우 약 1천만 달러에 달함).
 - 2007년부터 시작된 ‘경공업 원부자재 및 지하자원 공동개발’ 사업과 관련한 경공업 원부자재 지원(2007년의 경우 7,100만 달러에 달함)
 - 다만 2008년의 경우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정부간 협력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황임.

- 네 번째, 인도적 지원
 - 2007년의 경우 차관형태의 식량지원과 민간지원 형식의 비료지원 등 실질적인 정부의 대북지원이 3억 2천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민간차원의 지원은 900만 달러에 달하였음.
 - 여기에 대북 중유지원 3,700만 달러를 합하면, 2007년 전체 대북지원은 3억 7천만 달러에 달함.
 - 다만 2008년의 경우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하여 남한으로부터의 인도적 지원이 큰 폭으로 감소함.

- 다섯 번째,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임금 및 금강산 관광 사업 대가로 북한에 지급되는 현금
 - 개성공단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50달러, 사회보장비 7.5달러, 합계 57.5달러를 지급해 왔으며, 2008년 8월부터 최저임금을 5% 인상하여 62.3달러를 지급
 - 개성공단에 취업하는 북한 노동자의 수가 계속 증가해왔기 때문에 임금지급 총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1,400만 달러, 2008년 2천 4백만 달러(11월 말 기준)가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계됨.
 - 금강산 관광에 대한 대가(2007년 경우, 2천만 달러)와 관광객들이 금강산 현지에서 소비하는 금액을 합할 경우, 2007년 금강산 관광 관련 북한에 지불한 금액은 약 3,5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표 10〉 북한의 금강산 및 개성관광 대가 수입 현황 추계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9
금강산관광	136	37	21	13	15	13	12	20	11
개성관광	-	-	-	-	-	-	-	1	10

출처: 통일부의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

-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남한주민들의 평양 관광이나 각종 행사를 위한 방북 시 북한에 지불하거나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있음.
 - 2007년 남한주민의 북한 방문자 수는 개성공단지역을 제외할 경우 약 6만 6천 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 250달러(200유로)를 북한에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면 총 지출비용은 약 1,6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개성공단지역을 제외한 2008년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자 수는 약 3만 8천 명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지출한 비용은 약 961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이상 남북경협을 통하여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 이전된 현금, 물품 등을 달러로 환산하면 2007년에는 약 9억 6천만 달러인데 반해, 2008년에는 5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도 북한이 남북경협을 통해서 벌어들인 9억 6천만 달러는 2007년 북한의 수출액인 9억 2천만 달러를 초과하였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된 2008도에는 거의 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 자원의 이전규모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이 북한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음.

〈표 11〉 대북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규모 추계

(단위: 억 달러)

범주	단순교역을 통한 적자	위탁 가공료	경제협력 사업	인도적 지원	노동자 임금 및 관광 대가	북한 방문시 지출 비용	합계
2007	4.2	0.3	0.7	3.7	0.5	0.2	9.6
2008	3.3	0.4	0.1	1.1	0.5	0.1	5.5

주: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의 이전 기준임.

(2) 경공업 원부자재의 지원

- 대북 경공업 원부자재 및 지하자원 공동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에

두 번에 걸쳐서 1,20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부자재(비누 및 신발)가 북한에 공급되었음.

- 2007년도부터 시작된 경공업 원부자재 지원(총 8,500만 달러 상당)은 해당 분야의 생산을 촉진한 것으로 추정됨.

* 2002~5

72%

33%

- 이는 북한이 경공업분야 생산 확대를 위해 추가적으로 원부자재를 도입하거나, 혹은 절약된 외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임.
- 경공업 원부자재 지원의 결과, 북한 내에서는 관련 제품의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 남북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사업에 따라 북한에 제공된 원자재로 만들어진 비누와 신발 등의 제품이 북한주민들에게 공급되었으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RFA, 2008.11.4).
 - 1가구당 한 달에 한 번씩 빨래비누 2장과 세숫비누 한 장씩을 공급했으며, 개학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운동화 1켤레씩을 공급했다고 하며, 이 물건들의 품질이 좋아서 시장에서 운동화는 한 켤레에 2만원, 빨래비누는 1,500원에 판매되고 있음(연합뉴스, 2008.11.4).
- 신발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시장에서 북한산 신발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지난 10월 20일부터 전국의 모든 시장에서는 국내산 신발을 팔 수 없다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당국은 중국산 신발의 판매는 허용하지만, 북한산 신발은 팔지 못하게 한다는 것임(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48호, 2008.11.6).
 - 국내산 신발 판매를 금지시킨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공장에서 생산

하는 신발들이 불법적으로 개인장사꾼에게 넘어가는 사례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최근 남한의 신발 원부자재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신발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자 본격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북한당국은 국가에서 인정한 상점에서만 국산 신발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3) 6자회담 관련 에너지 물자의 지원

- 6자회담에 따른 대북 에너지 설비 및 자재 지원으로 2008년 2월부터 6월 말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강판류 13,500여 톤과 경량레일 5,000톤 제공
- 북한이 2008년 상반기 동안 전력생산 실적에서 20%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의 에너지 설비 및 자재 지원이 한 몫을 담당했을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은 노후화된 발전소의 현대화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 및 설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전력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임.
- 6자회담에 따른 대북 중유, 에너지 설비 및 자재 지원이 2007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한은 지금까지 중유 5만 톤과 중유 9.4만 톤 상당의 설비자재(약 4,000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 이는 여타 6자회담 당사국들에 의한 지원과 함께 북한의 2007년 및 2008년의 전력 생산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

나. 대외무역 및 국제사회 지원의 증대 효과

(1) 對중국 수입 구조의 특징과 북한의 생산 촉진 효과

□ 2008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생산재 중심의 구조를 이루고 있음.

○ 주요 수입품목은 연료·에너지(주로 원유), 기계류 등 산업자재와 우송 수단, 인조필라멘트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원유는 가장 큰 수입품목으로서 수입금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입량은 큰 변화가 없음(〈표 7〉 참조).

○ 생산재뿐만 아니라 곡물 등 소비재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다른 국가들에서의 수입과 달리 원자재, 자본재 등의 생산재 외에도 식량을 비롯한 다양한 생필품의 수요 충족에 기여

□ 2008년 북·중무역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경제성장률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00~2004년 동안 북·중무역의 증가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약 3.5%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⁴⁾

- 이러한 추정결과는 2000~2004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1%임을 감안할 때, 북·중무역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1999년 이후에도 부(負)의 성장을 계속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함.

4) 이영훈, “북·중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06).

- 2008년의 북·중무역 증가율은 2000~2004년 평균 증가율보다 크기 때문에 2008년도의 경제성장률을 3.5% 이상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2) 6자회담에 의한 대북 중유 및 발전설비지원 효과

□ 대북 에너지지원 실적

- 2007년 2·12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 톤에 상당하는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합의
 - “초기단계에 중유 5만 톤 긴급 에너지 지원, 60일 이내에 이행”에 합의 하였으며, 한국이 지원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2007년 7~8월 완전 이행
- 2007년 10월 경제·에너지협력실무그룹회의에서 45만 톤은 중유로, 55만 톤은 발전소 설비자재 등으로 지원키로 합의
- 2008년에는 중유 총 19만 6천 톤 지원
 - 미국과 러시아가 총 18만 8천 톤 지원
 - 한국의 경우 2008년에는 중유 지원은 없었으며, 강관류 13,500여 톤 과 경량 레인 5,000톤 등 에너지 설비 및 자재가 지원되었음.

〈표 12〉 2008년 대북 중유지원 실적

지원국	물량(톤)	지원시기
미 국	54,000	2008년 3월~
	34,000	2008년 6월~
	50,000	2008년 11월~
러시아	50,000	2008년 1월~
합 계	188,000	

□ 북한의 중유 사용 실태

- 지원된 중유 전량이 발전용에 사용될 것으로 추정됨.
 - 중유는 일반적으로 저장, 수송 등이 일반용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유종임.
 - 특히, 응고점이 낮아 저장 및 수송과정에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별도의 저장설비가 요구됨.
 - 북한에는 일부 항만과 중유를 소비하는 발전소에만 중유를 취급할 수 있는 저장설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 항구의 중유 저장설비는 나진선봉에 3만 톤, 남포송림에 2만 톤 정도로 총 5만 톤 정도로 추정됨.
 - 이로 인해 북한은 사실상 월 5만 톤 이상의 중유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표 13〉 북한 항구의 중유 저장설비 규모

지역	저유창고	가능규모
나진·선봉	3만 2천 톤	2만 2천 톤
남포	1만 1천 톤	5~6만 톤
송림	1만 1천 톤	2만 톤

- KEDO중유의 경우에도 전량 발전용과 난방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 난방용의 경우 겨울철에 가동되는 지역난방 설비인 ‘영변열발전소’에서 열생산 열원으로 전체의 1% 정도가 활용된 바 있음.
 - KEDO중유의 나머지 99%는 전량 발전용으로 활용되었음.

- KEDO중유의 경우, 합의된 용도 이외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용한 바 있음.

○ KEDO중유는 제2차 북핵 위기로 인해 중단될 때까지 연간 50만 톤 규모로 2002년 11월분까지 공급된 바 있음.

- 선봉화력발전소는 북한 유일의 중유 전용 발전설비이고 청진화력은 갈탄을 활용하는 발전설비이며, 여타 발전소들은 무연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들임.

〈표 14〉 KEDO중유 사용 발전소 현황 및 소비 비중

발전소명	발전용량(MW)	보일러수	중유 저장능력(톤)	KEDO중유 사용비율
청진화력발전소	150	4	21,200 (김책제철소 20,000톤 포함)	5%
동평양화력발전소	150	3	1,000	2%
영변열발전소	지역난방용 (겨울철에 가동)	3	2,000	1%
북창화력발전소	1,500	16	12,000	15%
평양화력발전소	500	14	17,000 (노천저장소 15,000톤 포함)	15%
선봉화력발전소	200	3	225,000(인근 정유공장의 90,000톤, 노천저장소 125,000톤 포함)	59%
순천화력발전소	200	4	1,000	2%

주: 미 의회 회계감사원(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이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제출한 대북 KEDO 중유 제공 현황 보고서에 나타난 중유가 공급되는 북한 내 7개 화력발전소에 대한 설비현황과 중유공급 비율 등으로 각 발전소의 설비와 중유저장 능력에 관한 데이터는 북한이 KEDO에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였음.

출처: 에너지/경제실무그룹 1차회의(2007년 3월, 북경) 준비자료.

- 일반적으로 무연탄발전소는 중유와 혼합하여 연소(혼소)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됨.
 - 중유 혼소 비중은 설계에 따라 8:2 또는 7:3 등으로 다름.
- 2·13합의에 의해 지원되는 중유도 취급항구 및 저장설비 등의 현황을 감안할 때, KEDO중유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대북 중유지원의 발전량 증가 효과

- 북한에 지원된 중유는 전량 발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이 다른 중유 공급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월 5만 톤이면 중유가 필요한 북한의 화력발전소를 정상 가동하는 데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한 판단임.
- 2008년에 지원된 18만 8천 톤은 북한 발전부문 중유 소비량(월 5만 톤)의 3.7개월분에 해당됨.
 - 중유 지원효과는 북한 화력발전소들이 평균 37.5%의 가동률로 3.7개월간 정상 가동된 결과로 추정할 수 있음.
- 따라서 18만 8천 톤의 중유가 지원된 2008년의 경우, 중유지원으로 인한 발전 증가량은 선봉화력 2억 kWh, 5개 무연탄화력 12.5억 kWh 등 총 14.5억 kWh로 추산됨.

□ 6자회담 대북 에너지 및 발전설비지원 효과

- 북한에 지원된 중유만을 고려할 때 2008년 대북지원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는 전체 발전량의 약 6%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됨.

- 그런데, 이는 중유만을 고려한 것이며, 남한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에 의하여 지원된 발전설비를 활용한 발전소의 개보수 효과는 고려되지 않은 것임.
 - 북한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2006년 기준인 37.5%를 가정하여 추정한 것인데, 6자회담에 따른 발전설비의 지원으로 동평양화력발전소 등 주요 발전소의 가동률이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됨.
 - 더구나 이러한 대북 에너지부문지원이 북한의 석탄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화력발전부문의 발전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중유뿐만 아니라 발전설비 및 자재지원도 북한의 전력생산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동평양화력발전소의 가동과 설비 개보수 및 현대화에 6자회담 관련 중유 및 설비자재지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동 발전소는 중유를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중유 공급이 발전량에 직접적으로 결부되고 있음.
 - 아울러, 2008년에 대대적인 개보수와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원된 발전설비 및 자재를 동 발전소의 현대화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3)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북한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 대중국 수출 1위인 광, 슬랙, 회 2위인 광물성 연료, 3위인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수출증가를 가져옴(단, 광물성 연료(무연탄 제외)).

〈표 15〉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출단가 현황

	광, 슬랙, 회		광물성 연료		철강		의류		어류	
	단가	증가율	단가	증가율	단가	증가율	단가	증가율	단가	증가율
2007	0.08	22.9	0.04	11.6	0.29	35.8	5.43	-4.6	1.28	45.6
2008.1~11	0.11	37.5	0.08	78.4	0.68	156.6	6.43	19.3	1.48	15.7

- 단,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수출규모(액)의 증가율이 수출단가의 증가율보다 전반적으로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단가의 증가가 수출량의 증가를 초래했다고 할 수는 없음.

〈표 16〉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07	2008.1~11
1	광, 슬랙, 회	164(38.5)	205(41.9)
2	광물성 연료	170(66.1)	194(19.2)
3	철 강	45(28.2)	76(91.4)
4	의 류	60(-4.7)	64(28.8)
5	어 류	30(-30.8)	36(36.3)
총 계		582(24.3)	706(32.6)

주: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 가운데 수입단가가 상승한 품목은 광물성 연료, 차량 및 부속품인데, 수입 1위인 광물성원료는 원조성 차관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단가상승과 거의 무관한 것으로 추정됨.

〈표 17〉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입단가 현황

	광물성 연료		보일러와 기계류		전기기기 장비		차량 및 부속품		플라스틱류	
	단가	증가율	단가	증가율	단가	증가율	단가	증가율	단가	증가율
2007	0.44	11	17.77	-49.1	0.96	3	20.77	-4	1.20	-4.0
2008.1~11	0.66	54.3	17.67	-3.3	1.20	23.6	33.26	55.9	1.41	18.3

〈표 18〉 북한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07	2008.1~11
1	광물성 연료	402(15.7)	551(50.7)
2	보일러와 기계류	104(25.0)	129(39.7)
3	전기기기, 장비	69(-29.0)	88(41.6)
4	차량 및 부속품	54(92.1)	58(17.4)
5	인조필라멘트	52(35.4)	50(2.7)
총 계		1,392(13.0)	1,602(27.9)

주: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무역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국제원자재의 가격상승이 북한경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수출은 소폭이나마 증가한 반면에 수입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수출 단가가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더 적은 양을 수출하고도 수출로 인한 외화획득액은 증대시켰다고 할 수 있음.

- 북한의 대중국 수입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으로부터의 광물성 연료(주로 원유)의 수입가격이 국제가격이 아닌 국가 간의 협약에 따라 원조성의 성격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역설적으로 국제 원유 가격의 폭등으로 이익을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수입 단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보일러와 기계류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 폭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 및 부속품의 수입은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북한당국이 국제원자재 가격의 폭등 현상에 나름대로 대처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음.

다. 북한의 시장화 수준과 당국의 통제 실태

(1) 북한의 시장화 실태 및 추가적인 개선 조치

□ 수공업, 무역업 등 개인 소상공업의 확산

- 2003년 3월 북한당국의 '시장 장려 조치' 이후 북한에서는 1~8명 미만의 개인 소상공업이 점차 늘고 있음(연합뉴스, 2008.6.30).
- 개인 소상공업은 가족단위로 생산을 하거나 공장, 기업소 기술자들이 합작·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개인이 한두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국식 소기업'의 형태도 등장하고 있음.
 - 업종은 집안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생산하는 수공업과 식당·버스·각종 수리 등의 서비스업이 주를 이룸.
 - 일부에서는 기관, 기업소의 상품수입 권한을 임대받아 무역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북한당국은 개인 소상공업이 주민들에게는 생필품을 공급하고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암묵적으로 용인해 왔으나, “수공업 돈벌이는 자기만 살면 된다는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확산을 경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최근 개인 소상공업자들의 생산품 압수 및 단속을 강화

□ 상업회의소 규정의 발표

- 북한 내각, ‘상업회의소 규정’을 채택(조선중앙통신, 2008.7.7)
 - 조선중앙통신은 “이 규정이 채택됨으로써 국제 및 다른 나라 민족상업회의소, 무역촉진단체와 교류, 협조를 실현하고 대외경제활동을 더욱 촉진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
 - 북한은 2000년 ‘평양상업회의소’를 설립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가입했으며, 2005년부터 ‘조선상업회의소’라는 새 이름으로 대외활동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규정 채택은 그동안 활동해오던 상업회의소를 공식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 북한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절차에 착수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조치를 취한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상공회의소라는 국제적인 성격의 기구를 설립하여 해외자본의 유치활동에 활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시장에 대한 북한당국의 통제 강화

- 북한은 최근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

- 2007년 8월부터 종합시장 운영시간, 장사 연령, 장사 품목, 각 매대의 품목 수, 장소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음.
 - 2009년 1월 3일부터 종합시장을 폐쇄하고 과거 농민시장 형태로 전환 하겠다는 '새 시장관리 규칙'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경제적 여건의 미비를 이유로 시행시기를 6개월 연장하기로 조치
-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시장에 대한 통제가 시행되고 있음.
 - '달리기 장사꾼'들에 의한 차관장사 금지 및 매점매석 행위의 단속
 - 사실상 개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영상점 및 수매상점들을 다시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
 - 장마당에서 인기 있는 상품에 대한 판매 제한이나 금지를 통해서 국영상점의 수익구조 확대 추구
 - 시장이나 개인사업을 통해서 재산을 모은 돈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탈 행태의 구조화
 -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한, 시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북한당국으로서는 시장화 확산으로 인한 체제 위협적인 요소를 통제하는 차원에서 시장에 대한 통제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확대 나갈 것으로 예상됨.

라. 종합평가

(1) 경제정책 추진 관련

- 북한은 200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정하

고 2008년을 ‘전환의 해’, ‘인민생활 개선의 해’로 설정했으며, 정권 수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새로운 경제정책의 변화는 발견할 수 없었음.

- ‘당의 경제건설 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인민생활 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
- 다만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 아래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 강화하여야 한다”는 총론적 방향만 제시(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보 노동신문과 정부기관지 민주조선과의 담화, 2008.9.5)

○ 대외경제협력분야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북핵 6자회담의 진전으로 인한 대외여건의 긍정적 변화를 북한당국이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되었으나, 가시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음.

- 북한은 핵신고와 마무리 단계의 불능화조치, 냉각탑 폭파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배제라는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주목할 만한 개혁·개방 정책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체제 강화를 위한 통제 조치가 강화되었음.

- 내부 사회주의 이완을 경계하면서 자력갱생 사회주의 고수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 최근 ‘체제 내부 단속과 수령 결사옹위’를 한층 강조하고 있는 점은 북한 내부 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 2008년 신년 공동 사설에서 ‘사회주의 본태에 기반한 사상전’을 통해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고 강조한 점 등도 보다 개혁·개방적인 경제정

책 추진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북한 언론매체(우리민족끼리, 2008.8.27) 등이 김정일 위원장의 개혁·개방에 대한 거부 발언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사회주의를 고수함으로써 “조선식의 사회주의 경제토대, 경제구조가 굳건히 다져지게 됐고 경제건설에서 성과가 이룩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음.
- 북한 내부적으로 공급부족이 만연함에 따라 공식가격과 시장가격 차이, 공식환율과 시장환율 차이가 커지면서 내부 경제가 안정되지 못했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적 경제환경의 불안정이 증가한 점도 경제정책의 보수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평가됨.

(2) 거시경제 지표 관련

- 2008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431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7.5% 증산된 것으로 평가됨.
 - 2007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401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1.7% 감소했었고 이는 경제성장률 하락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2008년 식량생산 증가는 식품가공업 등 여타 부문의 생산을 제고하게 되며 경제성장률 상승에 기여할 것임.
- 전력의 경우 전년 대비 10% 내외의 증산이 예상됨.
 - 2008년도 대북 중유지원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는 총 14.5억 kWh로 전체 발전량의 약 6%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 수력발전소 개보수 성과 등으로 인한 전력증산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됨.
 - 일반적으로 전력은 전방연쇄효과가 큰데, 특히 북한에 있어서는 전력

부문이 주된 병목(bottle neck)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력문제의 완화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 경공업의 경우 남한에서 지하자원 공동개발 사업의 대가로 2007년 0.7억 달러, 2008년 0.1억 달러의 경공업원 원부자재(비누 및 신발)를 제공함에 따라 그에 따른 생산증대 효과가 기대됨.
- 그 외 북·중무역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남북교역이 정체됨으로써 무역의 생산증대에 대한 기여도는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산업생산 및 무역 실적이 2007년보다 개선되어 2008년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은 플러스일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정에 적용되는 한국의 대미달러 환율이 급증함에 따라 2008년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도 있음.

(3) 주요 산업부문

- 2008년 북한의 산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생산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 요인으로는 양호한 기상조건, 일부 기간산업 설비에 대한 개보수 성과, 6자회담 틀에 의한 중유 및 발전설비 지원, 남한으로부터의 경공업 원부자재 지원, 국제상품가격의 상승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 농업부문은 양호한 기상 조건과 자체 비료 생산의 증가 등에 의해서 남한으로부터의 비료지원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곡물 생산은 전년도보다 30만 톤 증가한 431만 톤

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2008년 북한의 식량 공급 사정은 전년도의 좋지 않은 작황과 남한으로부터의 지원 중단 등으로 2007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부족분은 자체 비축미의 방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충당하였으나 주민에 대한 공급은 축소된 것으로 보임.
 - 수산업·축산업부문은 유류 부족, 축산 생산기반 낙후 등을 면치 못해 생산이 부진하였던 것으로 분석됨.
- 전력부문은 수력부문의 호조와 6자회담 관련 중유 및 발전소 설비 및 자재지원 등에 의해 적어도 상반기 중으로는 생산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 산업 전반의 가동률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됨.
- 석탄 및 광업부문도 전력 공급의 증가, 대중 수출의 증가 등에 의해 전력보다는 못하지만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광업부문에서는 철광 생산이 증가를 주도하였음.
- 제조업부문은 공장 가동률 제고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전력 공급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생산이 증대된 가운데,
- 설비도입 및 현대화, 비날론 등 자체 원자재 공급 증가 및 남한으로부터의 원자재 지원 등에 의하여 의류·신발 등 경공업부문,
 - 전력 및 철광석 공급 증가 등에 따른 철강을 중심으로 한 금속과 발전설비 및 산업용 설비를 중심으로 한 기계공업,
 - 주택건설, 산업설비의 개보수 및 현대화 등 수요의 증가와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의 개보수 성과 등으로 시멘트를 중심으로 한 건재공업,
 - 그리고 '입는 문제'와 '먹는 문제'와 관련된 비날론, 비료 등을 중심으로 한 화학공업 등의 생산이 여타 부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부문은 2008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일부 생산 현장에 적용되는 실용적인 기술의 보급, 발전소 등 일부 기업의 생산 정상화 및 현대화 추진 등에 머무른 것으로 보임.
- 건설부문은 평양시를 중심으로 인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연평균 2만 세대), 음식점, 상하수도, 도로 등의 건설·보수 등을 중심으로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 유통부문은 경공업 생산 증가 등으로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4) 대외교역 및 협력부문

- 2008년 중 남북교역은 1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에 불과
 - 특히 매년 40만 톤의 쌀과 30~35만 톤의 비료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북한의 식량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반면 2008년 북·중무역은 1~11월 중 전년 동기대비 29.3%로 2005년 14.9%, 2006년 7.6%, 2007년 16.1%에 비해 크게 증가
 - 특히 수출이 32.6% 증가하였으며, 이는 원자재가격 상승, 생산환경 개선, 대북투자 증가 등에 기인
 - 수입이 27.9% 증가하였고, 수입된 생산재는 생산증가에 기여
 - 한편 1~11월 중 무역적자는 9.0억 달러에 달했으나 그 가운데 지원성 차관으로 제공되는 원유수입이 약 5.5억 달러에 달하므로 실제 적자 규모는 3.5억 달러 정도로 추정됨.
- 남북교역의 증가세 둔화 및 북·중무역 급증의 결과로 북한의 대중국의 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자원 확보와 기간산업 선점, 시장확대 가능성, 저렴한 인건비 활용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대북 투자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가와의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유럽, 이집트 등의 중동 나라들과의 경제관계 개선이 두드러짐.

2. 2009년 북한경제 전망

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조치의 효과 전망

-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로 보다 나은 조건에서 북한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점에서 출발
 - 그는 북한이 핵 검증 의정서에 합의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2008.10.11).
 - 당시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데 대한 명확한 이해만 있다면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조치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언급
 - 따라서 비핵화 등 핵심 현안의 진전이 이뤄질 경우 북한의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비즈니스 환경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다음의 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들은 남아 있는 상황
 - 북한은 단기적으로 테러지원국 지원국가 리스트에서 삭제되면서 최종 목적지가 테러지원국 관련 수출통제그룹 E:1(쿠바,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에서 한 단계 아래인 D그룹으로 전환되었으며,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상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이 허가되는 최소기준이 10%에서 25%로 완화됨.
 - 그러나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상의 국가안보우려국가(D-1), 핵확산우려국가(D-2), 생화학무기 우려국가(D-3), 미사일기술 확산 우려국가(D-4)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는 한 D국가그룹에 대한 통제조치는 여전히 적용

〈표 19〉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이후의 대북제재 목록

대분류	관련 적용 법규	제재 내용
WMD 확산에 따른 제재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2000)	WMD 확산과 관련된 북한과의 거래는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미 행정부는 정부조달 금지(procurement ban), 원조 금지(assistance ban), 무기수출통제법(AECA)의 무기판매 금지, 이중용도품목의 수출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 가능
	미사일 제재	무기수출통제법(AECA) 및 수출관리법(EAA)으로 통제되는 미사일 장비와 기술, 미국 지정 군수품(U.S. Munitions List, USML)의 수출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일반적인 외국산 품목의 수입도 금지 가능
	행정명령 제12938호 및 제13382호	이들 행정명령은 WMD 확산자에 대한 제재에 관련된 명령으로서 행정명령 제13382호는 지정된 WMD 확산자에 대한 자산동결, 행정명령 제12938호는 원조 금지, 정부조달 금지, 수입금지, 국무부 및 상무부의 수출통제, 국제금융기관(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의 지원에 대한 미국의 반대표 행사, 신용대출 거부, 무기판매 금지, 착륙권(landing right) 거부 등을 규정
	대외수권법 Section 530(b)	핵비보유국 중 IAEA 안전조치 협정을 위반하거나, 미국과의 양자간 원자력 협정조약을 위반한 국가 등에 대하여 대외원조법상의 지원을 금지
	무기수출통제법 Section 101 (AECA)	안전조치 및 비확산 통제조치에 따르지 않고 우라늄 농축 장비, 기술 등을 공급 또는 제공받은 국가에 경제, 군사 지원 삭감 등의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
	대외원조법	본 법의 Section 116(a)는 인권유린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개발원조를 금지한다. 또한 Section 520(b)에서는 이러한 국가에 대한 안보지원을 금지
인권문제에 따른 제재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Section 110 (2000)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Tier 3으로 지정된 국가에 제재를 부과한다. (북한은 2003년부터 Tier 3로 지정되었음.) 또한 2008년부터는 북한 관료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과의 문화교류에 참여 불가능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제재	대외원조법 Section 620(f)	공산주의 국가로의 원조는 거부(인도적 지원 제외)
	수출입은행법(1945)	미국과 막스-레닌주의 국가와의 거래를 금지
	Glenn Amendment	미국 정부는 공산독재국가로 IMF 신용을 이용한 편익 제공 관련 안전에서 반대표를 행사해야 함
북한 핵실험 (2007.10.9) 관련 제재	Glenn Amendment 제재	대외원조(인도적 지원 제외), 미 정부의 방산물자 및 서비스 판매, USML 품목의 수출을 금지. IFI(국제금융기관) 지원에 대해 미국은 반대표를 행사. 특정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에 제한
기타 제재	국무부, 대외운영 및 관련사업 예산법	수출입은행의 신용 대출 등을 포함한 대북 금융지원 및 배상금 지급을 금지

출처: 임을출, “북미관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경제체로의 이행효과,” 「통일문제연구」, 제20권, 제2호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8) 참조.

- 또한 미 상무부가 발표한 대북교역지침에 따라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및 핵확산 활동,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제재는 유지되며, 적성국교역법 적용 배제에 따라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하고 수출관리규정(EAR)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제가 계속 유지됨.
- 무기관련 품목의 수출통제나 이중용도품목의 수출도 여전히 통제
- 결국 북한이 이중용도품목과 첨단물자와 기술을 자유롭게 수출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세나르체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생화학무기 통제체제인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그룹, 핵공급그룹(NSG) 등 국제수출 통제체제에 일원으로 참여해야 함.
- 이는 북한이 향후 오바마 정부와 관계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리려면 비확산, 인권개선 그리고 시장경제지향적인 개혁 등이 진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
- 특히 미국으로부터 비핵화(3단계 핵폐기)에 대한 보상으로 국제금융기구 가입 뿐 아니라 정상교역관계(NTR) 지위를 획득해 최혜국대우(MFN) 부여와 이에 따른 일반특혜관세(GSP) 제공을 받을 수 있느냐도 주요 관심사
 - 북한 상품의 북한 진출을 위해서는 정상교역관계(NTR) 지위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쌍무 협정을 통해서만 가능
 - 미 의회 보고서도 북·미 양자간 무역협정(FTA) 체결을 제안한 바 있음.⁵⁾
- 미국은 베트남과 양자간 무역조약을 통해 수입관세, 수입할당, 투명성,

5) Dick K. Nanto, *The North Korean Economy: Overview and Policy Analysis*, CRS Report for Congress, April 18, 2007.

분쟁해결, 투자, 지적재산권 보호, 서비스시장 개방, 경기부양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무역·투자조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비시장경제국가가 미국으로부터 NTR 지위를 확보하고, 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해당 국가의 시장개방과 제도개혁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었음을 의미함.

* (PNTR) WTO 가
가 .

- 향후 북·미관계 정상화는 비핵화 진전과 병행해서 개발원조, 무역 및 투자 정상화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미 의회 조사국도 이런 접근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는 바, 즉 미국은 북한과 상품, 서비스 및 투자를 포함한 무역협정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미국과 베트남 간에 이뤄진 2001년 양자 무역합의를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힘.

나. 2009년 식량수급 전망

(1) 2008년 식량수급 실태

- 농촌진흥청은 2007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01만 톤(정곡기준)으로 추정 발표한 바 있음.
 - 곡물 생산량 가운데는 쌀, 옥수수, 보리, 밀, 콩, 잡곡뿐만 아니라 감자의 생산량을 곡물로 환산하여 포함하고 있음.
- 2008 양곡연도(2007.11~2008.10)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식량(HS code 10기준)은 16만 9천 톤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 단 밀가루와 두

- 류를 포함하면 23만 2천 톤으로 전년에 비해 11% 감소
- 식량 수입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수입액은 전년에 비해 5.7% 증가

〈표 20〉 북한의 대중 곡물수입실적(2007~2008)

HS코드	품목명	2007(2006.11~2007.10)			2008(2007.11~2008.10)		
		수입액 (천\$)	단가 (\$/kg)	수입량 (톤)	수입액 (천\$)	단가 (\$/kg)	수입량 (톤)
1003	보리	8	0.29	28	160	0.41	390
1005	옥수수	6,450	0.18	35,845	32,275	0.27	121,259
1006	쌀	19,288	0.31	61,723	15,508	0.33	46,966
1007	수수	1	0.20	5	-	-	-
1008	잡곡	171	0.31	548	433	0.41	1,045
1003-1008	소계	25,917		80,248	48,376		169,660
1101	밀가루	31,095	0.24	131,992	10,647	0.26	40,518
1201	두류	10,040	0.31	32,155	11,860	0.52	22,443
1003-1201	합계	67,051		262,296	70,882		232,621

출처: 중국 해관총서.

- 2008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미국을 제외하면 거의 무시할만한 수준임.
 - 미국은 2008년 중반부터 2009년까지 총 50만 톤의 곡물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하고 2008 양곡연도 중 11만 8천 톤을 지원하였음.
 - 한국 정부는 2000년부터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연간 30~40만 톤의 식량을 거의 매년 제공하였으나 2008년에는 식량지원을 중단하였으며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무상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2008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20만 톤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종합하면, 2008년 북한의 곡물 총공급량은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장의 곡물 가격이 급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곡물 공급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당국은 보유하고 있는 재고 곡물을 방출함으로써 부족량을 메웠으나 절대 공급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곡물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음.
 - 또한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정과 중국의 해외 곡물 수출 제한 조치로 북한은 충분한 양의 곡물을 중국에서 수입할 수 없었으며 수입 단가도 상승하여 더 많은 외화를 지출하였음.

(2) 2009년 식량수급 전망

□ 농촌진흥청 및 FAO와 WFP의 추계 비교

- 한국농촌진흥청은 2008년 생산량을 431만 톤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추정치는 FAO/WFP 추정치(334.3만 톤)와 100만 톤에 가까운 격차를 보임.
 - 2008년 북한에 대한 한국의 비료지원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2007년 후반기에 제공한 비료의 일부가 2008년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통상 30만 톤으로 추정되는 대북 비료 지원 중단 효과가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08년에는 감자 재배면적이 예년에 비해 10만 ha이상 증가하였으며 씨감자의 공급도 원활하였으므로 비료의 사용 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에 비해 감자 생산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FAO/WFP가 발표한 국내 생산량 334.3만 톤은 북한 농업성의 리일섭 대외협력국장이 밝힌 금년도 예상 수확량 486만 톤(조곡 기준이며 정

곡으로 환산할 경우 410만 내외)에 비해 70여 만 톤 적은 양임.

- 2008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초기 생육의 부진과 비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생육기간 동안의 좋은 기상 환경에다 자연재해를 입지 않아 2007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의 관측이었음.

□ 북한의 2009년 식량수급 전망

- 국내외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할 때 북한의 2009년 자체 식량 생산량은 431만 톤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08년 기준 최소소요량 540만 톤에 비해 110만 톤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됨.
- 식량 공급 부족량 100톤 중 국제사회의 지원과 통상적인 상업적 수입량을 감안하면 40만 톤 내외 부족이 예상됨.
 - 국제사회의 지원과 통상적인 상업적 수입량(20~30만 톤)을 감안하면 40~50만 톤 내외의 부족이 예상됨.
 - WFP는 2009년 북한의 취약계층 558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3억 4,600만 달러의 원조 계획을 설정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계획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해외 곡물 수입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며 2009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09년 북한이 해외에서 도입하는 곡물을 20~30만 톤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최근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2009년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임.

- 한국 정부는 2009년부터 대북 식량지원을 기존의 차관 방식에서 무상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지만 무상지원에 따르는 제반 절차를 북한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다. 2009년 북한경제 전망

(1) 추진여건

□ 대내 환경

-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 이상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북한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김정일의 건강 회복을 과시하는 동정 보도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음.
 -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건강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를 계기로 북한 내부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우선 북한 내부적으로는 후계체제 구축문제가 당면과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당국은 체제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판단됨.
 - 대외적으로는 후계체제의 외교안보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관계 개선 작업에 더욱 매진하면서, 경제적 토대 구축을 위한 투자 자본 및 선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외경제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추정됨.

- 시장화 확산에 대한 통제 강화: 최근 북한경제의 시장화가 확산되는 현상에 위기감을 느낀 북한당국은 시장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의 시장화 확산 현상에 대한 단속 강화는 시장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북한사회의 일탈현상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김정일 위원장 건강 이상설과 맞물려 체제와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

- 식량 부족 지속: 한국농촌진흥청의 2008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 추계에 따르면, 올해에도 식량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북한은 일차적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국제기구에 식량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차적으로 남한의 식량지원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판단됨.

□ 대외 환경

- 남북관계의 경색: 2008년 남북관계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또한 북한당국이 개성공단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조처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에 따라서 그나마 유지되던 남북 간의 경제협력사업 마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됨.
 - 북한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전환을 압박해 보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체제 내부의 동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당분간 북한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구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세계적인 경제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9년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할 경우 남한의 경제지원에 대한 미련을 완전하게 떨쳐버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남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추정됨.

○ 세계 금융공황의 발발로 세계경제의 위축 예상: 세계경제는 2008년 9월부터 심각한 글로벌 금융경색에 직면하여 실물경제도 동시에 추락하는 복합 불황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세계시장의 불황은 상대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낮은 북한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외무역의 실적에 따라 북한경제의 실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임.
- 특히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 역시 수출과 해외자본의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의 감소가 불가피해 보이고 이러한 상황이 북한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세계적인 경제침체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 상품에 대한 수입 수요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북한의 외화획득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출범: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대외환경은 미국의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2009년도를 북한체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미 대선 기간의 발언 내용이나 발표된 문헌들을 중심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들을 예상해 보면, '직접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실현' 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음.

- 여기에서 북한으로서는 '직접대화'를 강조한 부분에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적 방점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탐색과 전략의 조정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관계 정상화 작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자하는 노력과 미국의 핵불용 원칙이 충돌하면서 북핵문제는 매우 점진적인 해결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결국, 북한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미국 및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작업은 당분간 제한된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2) 경제정책

- 기본적으로 2009년 신년사에서 북한의 향후 대내외 경제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은 발견할 수 없음.
- 그러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살리기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종래 국방력 강화를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2009년은 경제 부문을 군사부문 보다 먼저 배치하면서 경제문제의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올해(2009)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미 제시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기존의 비전 아래 경제건설을 위한 기존 노력들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임.

- 북한은 2009년 신년사에서 2009년을 '혁명적 대고조의 해', 즉 혁명과 강성대국에서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음.

- 경제발전을 위한 방식으로 혁명적 군인정신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
 - 이와 함께 사회주의 자립경제, 집단주의와 자력갱생 등을 재강조
 - 부족한 내부 자원을 대중적 운동을 호소하는 대내적인 캠페인을 강화하면서 보완하려는 의도로 평가됨.
 - 2009년 세계적인 경제위기, 대남 관계 경색 등으로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협력이 축소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점도 자력갱생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배경으로 해석됨.
- 신년사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올해(2009) 북한의 경제정책은 외부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과거회귀적이고, 보수적인 기조를 띠 것으로 전망됨.
 -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전'을 경계,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더욱 철저한 확립 등을 주장하고, 경제관리 분야에서 경제건설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고, 계획화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야 하다고 강조한 대목 등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
- 경제부문별 과제 제시 내용도 이전과 특별한 차이점은 발견하기 어려우나,
 - 천리마제강연합소 현대화와 같은 금속공업을 중심고리로 앞세우고 있는 점이나,

- 화학공업부문에서 남흥가스화대상공사를 언급해, 북한이 기초화학생산을 위한 가스설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은 이전에는 크게 내세우지 않았던 대목
 - 또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과학기술자의 구체적인 연구과제로 종자문제 해결 등을 제시한 점, 평양살림집 건설과 산림조성 산업 등 보다 현실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점도 북한의 경제현안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음.
- 대외경제관계와 관련해서는 2008년 신년사에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원칙을 틀어쥐고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고 구체적으로 강조한 것과는 달리 올해(2009)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올해의 불투명한 대외, 대남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되며, 다소 보수적인 대외경제관계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내 경제정책

- 2009년에도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농업문제 해결을 내세울 것으로 보임.
- 북한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들은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농업문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으로 풀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음(노동신문, 2008.10.22).
 -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국제적인 대북 식량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농업증산을 위한 물질적 수단들을 제공하는데 노력하면서도, 이것이 순탄하지 못할 경우 정신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됨.

- 즉 식량난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으로 돌려 주민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농민들의 노동력 동원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공동사설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곡 생산목표를 점령’하고, 이를 위해서 농촌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북한경제의 ‘선행부문’의 정상화와 현대화 작업은 2009년에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선정되어 경제회생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눈에 띄이는 부분은 금속공업에 대한 강조임. 공동사설은 선행부문 중 가장 우선 적으로 “금속공업의 선차적 발전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는데 힘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금속공업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전력과 석탄부문의 사정이 다소 개선되면서 이제 금속부문이 경제회생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금속부문에 대한 강조 이외에는 2009년 신년사에서 나타나는 부문별 경제정책의 방향은 2008년과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 ‘경제강국 건설’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사회주의 원칙을 토대로 한 계획사업체계, 유통체계, 시장의 효과적 관리체계 등 경제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이 현실적인 경제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최신 과학기술 발전에 기초하여 인민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노력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경제강국의 건설’과 당면한 경제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차적으로 3차 과학

기술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임.

- 2009년 신년사에서도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기초'로 삼아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현대화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모가 나게 풀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북한은 김일성의 110회 생일이 되는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통해서 경제발전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율을 50%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국가총생산에서 첨단산업의 비중을 20% 이상 되도록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음(조총련 기관지 조국 11월호의 리의구 국가과학원 부원장 인터뷰 기사).

□ 대외 경제정책

- 국제경제의 침체와 함께 미국 달러화 및 중국 위안화 가치가 상승 국면을 이어갈 경우 북·중간 교역을 포함한 북한의 대외무역은 상당한 수준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여기에 남북관계의 경색이 지속될 경우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규모의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북한으로서는 대체 무역상대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북한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2008년과 마찬가지로 중국경제의 경기 위축 현상은 2009년도 북·중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최근 철광, 강철, 니켈, 납 등 원자재의 대중국 수출단가가 하락하면서 북한의 대중 수출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러시아와 추진 중인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의 개선 공사도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 먼저 세계 경제침체의 파급효과로 러시아의 투자 여력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경우 동 사업에 대한 남한 자본의 참여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EU와 중동국가들과의 경제협력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으로서는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른 외국자본들의 북한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점을 이용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EU와 중동지역의 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북한으로서는 이 국가들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면서 최신 과학 기술 도입을 위한 통로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3) 주요부문별 국내 경제 전망

- 2009년 북한경제의 향방은 상반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측면 즉, 남북관계와 대미관계를 포함한 국제관계의 진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경제의 성과는 대외경제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음.
 - 6자회담의 진척과 그에 따른 대북 경제지원과 남북관계에 따른 남한으로부터의 자원 이전 규모 변화는 북한 산업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속도를 낸다면, 북한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 움직임이 보다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음.
- 대외관계의 개선이 에너지부문 등을 통하여 북한경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른 남한으로부터의 자원 이전 규모의 축소가 이를 상쇄하여 북한경제가 2009년에 의미 있는 성장을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임.
 - 2008년 상반기까지의 국제 상품가격의 상승은 북한의 주력 상품의 가격 인상으로 북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으나, 2009년의 세계 경제의 동시 불황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규모 축소, 중국 등 북한 상품 주요 수입선의 수요 감소 등으로 북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에너지 및 광업부문

- 에너지부문은 수력발전소 건설과 개보수·현대화의 영향으로 기후 사정이 악화되지 않으면 수력부문의 생산증가는 200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화력부문은 6자회담의 진전에 따른 대북 에너지지원과 연동되어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핵 불능화와 연계된 중유 100만 톤 상당의 대북 에너지지원 중 약 60%가 이행되었으며, 일본의 20만 톤 등 약 40만 톤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북핵문제가 진전되어, 미 집행부분이 2009년에 집행된다면 2008년과 마찬가지로 전력생산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됨.

- 북핵문제의 진전이 있을 경우 발전량 등 에너지부문은 2008년에 이어서 2009년에도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전체 산업부문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임.
- 광업부문은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수요 감소 요인이 적지 않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2008년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식량 사정

- 2009년 북한의 곡물 수급 사정은 절대량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2008년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판단됨.
 - 북한 곡물 수요량은 540만 톤, 확보 가능량은 490~500만 톤으로 40~50만 톤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실제 주민에게 공급되는 식량은 2008년보다 크게 증가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비축미를 동원하여 2008년의 부족한 식량을 어느 정도 충당하였고, 올해 생산되는 식량의 일정 부분이 다시 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남한의 대북 식량 및 비료지원은 2009년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제 금융위기에 이은 세계 경제의 불황 심화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 중국 역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대북 지원을 크게 늘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제조업부문

- 전력 생산의 증가와 금속, 화학, 전자 등 일부 중화학 공업부문 대규모 설비의 가동률 상승 등으로 일부 경공업 원자재와 비료 등의 공급이 늘어나겠지만
 - 남북경협이 축소와 주요 외화가득원의 수출 감소 등으로 설비 및 원부자재의 전반적인 수입 여력이 감소하여 산업 생산이 2008년과 같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건설부문

- 평양의 주택 건설 등이 갑작스럽게 축소되지는 않겠지만, 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이루어졌던 대대적인 건설활동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정체될 가능성이 있음.

□ 상업·유통부문

- 북한당국이 사적인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시장 규제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비사회주의 유통 부문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공식적 유통망이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4) 주요부문별 국제 경제 전망

- 최근의 세계 경제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고의 위기로 평가되고 있어 북한과의 무역 및 대북투자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세계경제 위기로 인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광물 등 1차 산업 중심의 수출구조를 지닌 북한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킬 것이 예상된다.

□ 무역부문

- 북·중무역: 최근의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08년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대중국 수출규모를 증가시킨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남북경협: 12월 1일 북한당국의 남북경협 축소 조치로 인해 북핵문제 및 북·미관계 개선이 획기적으로 진전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은 점차 위축될 것으로 보임.
 - 금강산 및 개성공단 관광 중단
 - 통행제한, 남북경협사무소 폐쇄 등으로 개성공단 생산 차질 및 위탁 가공교역 크게 위축
 - 그 외 일반교역도 점차 위축될 것으로 보임
- 기타 국가와의 무역도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북한의 주요 외화기득원인 남북경협의 위축 및 대중국 수출의 감소로 인해 북한의 외화수급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임.

□ 투자부문

- 만약 북한이 2012년 경제강국 건설을 이룩하려면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여야 할 것임.

- 그런데 대북투자는 북한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고는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무역에 비해 정치군사적 환경 변수가 크게 작용
-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주변국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요구하고 있어 단기간에 핵문제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향후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북핵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핵보유국의 인정 또는 포기에 따른 대폭적인 지원 약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외국투자자들의 북한 시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 단기적으로는 테러지원국 리스트 삭제 조치를 토대로 보다 대내외 경제환경 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중국, 러시아 그리고 중동국가들로부터의 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됨.

[부록]

2008 북한경제 주요실적

월	내 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지 현지지도 단위들, 올해 첫 20일 동안 생산 초과 달성(평방) · 평안북도 돼지공장 신설(중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강도 동신군 원흥 온천지구에 40동의 온천살림집 건설(중방) · 평양 대성 다이아공장, 각종 자동차 타이어를 재생하는 새 공정 도입(중앙TV) · 함흥시 흥덕구역에 「은덕원」(목욕탕) 새로 건립(평방) · 신의주신발공장, 질 좋은 신발을 하루계획 120% 생산(평방)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생활 제일주의’로 2월 생산계획을 앞당겨 달성(중방) · 함경북도, 인민경제부문에서 「2월 계획」 초과 달성(중방) · 자강도 임업관리국, 통나무생산 초과달성(중앙TV) · 3월 중순 현재 ‘문천탄광’에서 월 계획의 90%를 수행하는 등 전국 각지탄광의 혁신적 석탄생산 성과(중방) · 통천발전소, 요즘 전력생산을 종전보다 1.2배 생산성과(중방)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업성 산하 신발공장들, 1/4분기 인민경제계획 완수(중방) · 전력공업성 산하 발전소들과 금속공업성 산하 광산사업소, 1/4분기 인민경제계획 각각 달성(중방) · ‘쑥섬혁명사적지’가 조성된(1990.8.10) 이래 현재까지 국·내외 등 1만 6,900여 개 단체, 214만 명 참관(중방) · 개성시, 왕건왕릉과 공민왕릉간 관광도로 신설(평방) · 전력성 산하 수력발전소들, 1/4분기 전력생산 초과 달성(중방) · 北 대계도(평북) 간석지제방공사장, 12만산 대밭과 실시(중앙TV) · 강동지구탄광·북창화력 등, 중산투쟁에서 성과(중방) · 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4월 인민경제계획 초과 달성(중방)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해북도 봉천군, 저수지 건설 완공(중방) · 평안남도 청남구, 탄부들을 위한 전자도서관 건설(평방)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리원 애국수지일용품공장, 5월 계획 103%로 넘쳐 수행(중방) · 최근 강계시(자강도) 일부구간에 ‘무궤도전차’ 개통, 운행(중앙TV) · 北 전력·석탄·금속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부문 많은 단위들, 올해 상반기 계획 초과 수행(중방)

일	내 용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성요업공장,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초과 수행 - 위생자기 및 타일 생산 공장(평방) · 철도성의 상반기 수송계획 100.3% 초과완수 등 전국 각지 탄광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상반기 계획 초과달성 선전(중방) · 평양시내 중심거리 90여만㎡ 아스팔트로 재포장(조선신보)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대형산소분리기 기본설비조립 완공으로 인한 정상 가동(중방)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러, 8.6 '나진-두만강 철도임대계약서' 체결(중통) · 원산청년발전소 1호 발전소의 마지막 발전기와 압력관로 조립공사 완공(중방) · 평양호텔 2층식당 현대화 공사완료, 올 5월 시작된 공사는 종래 250석이던 좌석이 400석으로 확장 되는 등 15일부터 영업시작 자랑(조선신보) ·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2호발전소'가배수로 물길굴공사 완공(중방) · 원산화학공장, 현대적 밀봉재 생산 공정 완공(중방) · 평안남도, 강서돼지공장 개건공사 완공(평방) · 함흥편직공장, 보온내의와 아동내의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편직물 새로 개발(중방) · 단천광업건설연합기업소, 미광 침전지 완공(중방) · '단천광산기계공장'의 1단계 개건공사 완공(중방) · 함경북도 경성군, 하온포지구에 살림집 50동 건설(평방)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철도국, 은산-순천화력발전소 사이 철도 전기화공사 완공(평방) · 대계도간석지 1호 방조제 공사 완공(중방) · 평안북도 남신의주 지구, 500여 세대 주택건설(중방) · 청진항만건설사업소, 서항방파제 개건 확장공사 완공(평방) · 平南 문덕군 룡림리에 300동의 현대적 살림집 완공 및 200여동 개건보수 완공(평방) · 청진항만건설사업소의 일꾼-노동자들이 규모가 가장 큰 청진 서항의 방파제 개건공사 완료 성과 보도(중방) · 北, 곡산군 평암리 돌미산 기슭에 30여동의 살림집 건설(중방)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천대붕수산사업소, 연간 인민경제 계획 초과 달성(평방) · 咸北道 경성군 하온포지구에 50동의 살림집 건설(중방) · 동평양화력발전소의 3호 보일러 대보수도 성과적으로 완료 보도(중방)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시 형제산구역 제산협농·순안구역 대양농장마을, 새 농촌주택들 건설(평방) · 함경북도 무산군인민위, 성천수 제방보수공사 완료(중방) · 영원발전소 1호발전설비 조립 완성(중방) · 北, 10년간의 토지정리 성과 선전(중방) · 함경남도 장진군, 자연흐름식 수도화 공사 완공(평방) · 문평제련소에 유색금속 생산공정 새로 건설(중방)

월	내 용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강 강안정리공사(아스팔트도로포장, 살림집과 공공건물 시설물 개선공사 등) 완료 자랑(중방) · 黃南·강원도·咸南 등 전국 各道 탐사관리국 산하 탐사대들에서 석탄·철광석·광물 등 “유망한 지하자원 매장 발견” 성과 보도(중방)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책시 상평리 송흥온천지구, 30동의 온천살림집 건설 마감단계 진행(평방) · 회령기초식품 공장, 2중 3대혁명붉은기 쟁취(중방) · 올해 3중3대혁명붉은기 10여 개 단위, 2중3대혁명붉은기 210여 개 단위, 3대혁명붉은기 880여 개 단위가 쟁취(중방) · 평양에 北-이집트 합작 「오라은행」 개업(중통) · 北-체코, 12.17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수정보충과 관련한 의정서’ 조인(중방) · 운산역 ↔ 순천화력발전소간, 함흥 조차장역부터 비날론역 사이의 철도 전기화공사 완공(평방) · 평양의료기구공장(*1960년대 초 건설되어 2005년부터 개건사업 진행) 개건(조선신보) · 北, 연산군민발전소 조기 완공으로 첫 전기생산(중방)

2008 북한경제 주요행사

월	내 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년공동사설 관철 기관·기업소 꺾기대회(중·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성, 직맹, 농근맹, 여맹, 2.8비날론 연합기업소, 혜산청년탄광, 순천화력 등 · 신년공동사설 관철 공장·기업소 꺾기대회(중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 방직공장, 신의주 화장품공장, 원산 신발공장, 청진 식품공장, 회령 구두공장 등 · 「직총」 중앙위 제60차 전원회의, 평양에서 개최(중통) · 「농근맹」 중앙위, 1.30 제55차 전원회의 진행(중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계돼지공장 종업원들과 장강군 근로자들,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꺾기모임 각각 진행(중방) · 직총중앙노동자예술선전대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중방)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3.9 성진제강기업소 현지지도 10돌 보고회 진행(중통) · ‘농민동맹’결성 80돌 기념 중앙보고회,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중방) · 전국 농근맹 ‘토끼기르기’ 열성자회의 3.26 평양에서 진행(중통) · 전국 공생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3.25~27 평양에서 진행(중통)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5돌 경축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모임(중방) · 최고인민회의 제11기 6차 회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중방) · 北-中 합작 「평양백산담배합영회사」 조업식 4.23 진행(중방) · 「5.1절」 118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4.30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알곡 및 인민소비품 획기적 증산」 강조(중앙TV) · 김일성의 ‘평양블록크공장’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 당면한 모내기 제철에 끝내기 위한 ‘호소모임’ 5.5 현지 진행(중방) · 제11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중통) · 황북 사리원 대성타월공장, 김父子 현지지도 40주년 기념 보고회, 현지에서 진행(중앙TV) · 상업과학연구소 창립 50돌 기념 보고회, 5.19 현지에서 진행(중앙TV) · ‘금속건설사업소’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5.20 전승훈 내각 부총리 등 참석하에 현지 진행(중방) · 김정일의 자강도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5.30 현지진행(중방)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의 흥남비료연합기업소·서호수산사업소 현지지도 60돌 기념보고회, 6.4 진행(중방) · 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꺾기모임 6.7일, 9일 각각 진행(중방)

월	내 용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계급과 「직맹」 원들, 김중린·김병팔(「직총」 위원장, 보고) 등 참가하에 김일성 사망 14돌 기념 ‘맹세모임’ 진행(중방) · 北 농업근로자들, 7.3 김일성 사망(7.8) 14돌 기념 맹세모임 진행(평방) · 자강도 화평군 근로자들, 김정일 지시 관철 쫓기모임 7.9 진행(중방) · 평안북도 태천군 ‘은홍협동농장’ 등 각급 단위들에서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 7.15 각각 현지에서 진행(중방) · 「농근맹」 중앙위 제56차 전원회의, 평양에서 진행(중방) · 「직총」 중앙위 제61차 전원회의, 7.23 평양에서 김경팔(「직총」 위원장, 보고) 및 중앙위원회 위원들·중앙과 지방 일꾼들 참가하에 진행(중방) · ‘임농복합경영’ 관한 민족토론회, 7.29~31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통)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북 영변견직공장 창립 60돌 기념 보고회, 7.31 현지에서 진행(중통) · 「새기술소식」 5,000호 발간 기념보고회, 8.4 변영립(국가과학원장)·주성룡(중앙과학기술통보사 사장, 기념보고) 등 참가하에 진행(중통) · 北, 8.9 박천견직공장 창립 60돌 기념 보고회 개최(중방) ·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 8.18 강창욱 농근맹 중앙위원장 등 참가하에 ‘가을걷이와 낱알 털기 총력’ 쫓기모임 진행(중방) · 김책착암기공장, 8.19 김정일 현지지도 20돌 기념 보고회 진행(중방) · 황남 은률군 청년전위, 가을걷이와 낱알 털기 전투의 선봉대·돌격대가 되기 위한 쫓기모임 진행(중방) ·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김정일의 선군영도 개시 48돌 기념 경축모임(중방) · 황해남도 개령광산, 8.19 김일성 현지지도 60돌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김일성의 평천대형운전기제공장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 8.23 진행(중방) · 전국농기계전시회와 기술혁신발표회, 8.26~28 황해북도 황주군에서 진행(중통)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남 청년단전 개발 50돌 기념보고회, 9.4 2.8직동청년단광에서 진행(중방) · 황해북도 농업과학기술 보급관, 9.5 현지에서 개관식 진행(중방) · 식주식물공장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9.16 현지에서 진행(중방) · 평안북도 지방특산음식품평회, 신의주시 압록강각에서 진행(평방) · 전국감자부문 과학기술성과 발표회, 9.18~19 대흥단군에서 진행(중방) · 제4차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9.22~25), 개막식(3대혁명전시관) 진행(중방) · ‘지하자원보호부문 과학기술발표회, 9.23 인민대학습당에서 한창식(北자원보호연맹 지하자원보호협회 위원장/연설) 등 참가하 진행(중통) · 김책공업대학 창립 60돌 기념 과학토론회, 9.23 김책공대에서 개막(중앙TV)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차 전국발명 및 새기술전람회’,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중통)

월	내 용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기초식품전시회 및 발표회(9.30~10.2),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중통) · ‘평양방직공장’ 창립 60돌 보고회, 10.15 허태권(경공업성 부상) 등 참가下 현지 진행(중방) · ‘만수대거리’개건공사 건설자들의 결의모임 진행(중방) ·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 10.21 평양에서 허태권(경공업성 부상/개막사) 등 참가下 개막(중통) · 제19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 10.23 최태복(黨비서)·노두철(내각 부총리)·변영립(국가과학원 원장/개막사) 등 참가下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중방) · 고산진혁명사적관과 희천공작기계공장·희천제사공장·희천여관, 김정일의 현지지도 10돌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駐北 몽골대사관성원들, 황북 사리원시 정방협농 친선노동(중통) · 평양통신기계공장, 10.23 김일성 현지지도 60돌 기념보고회 진행(평방)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차 전국조선옷전시회 개막(중방) · 김일성의 ‘평양밀가루공장’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회, 11.10 진행(중방) · 함경남도 단천광산기계공장, 11.11 창립 50돌 기념 보고회 진행(중방) · 강서군 청산협동농장과 전천음료가공공장에 3중3대혁명붉은기, 락랑영예군수지일용품공장과 초산포도술공장에 2중3대혁명붉은기 수여(중방) · 北 농업성, 11.12~13 「전국농업부문기술경험발표회」 진행(조선신보) · 고보청년발전소(자강도 위원군) 건설 조업식, 11.18 박도춘(자강도黨 책임비서) 등 참가下 현지진행(중방) · 평양3.26전선공장 창립(58.11.19) 50돌 기념보고회, 11.28 현지 진행(평방)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의 고산군 란정협동농장 현지지도(98.12.1) 10돌 기념보고회, 11.30 현지 진행(중방) · 낙원기계연합기업소·신의주화장품공장, 12.4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위한 종업원 께기모임 진행(중방) · 3세대 이동통신 개통식, 노두철(내각 부총리)·류영섭(체신상)·박명철(조선체신회사 사장/연설)과 이집트 오라스콤 전기통신회사 성원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중통) · 北-체코, 12.17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수정보충과 관련한 의정서’ 조인(중방) ·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 전시 및 발표회, 12.18~19 평양에서 진행(중방) · 강동수력건설연합기업소 종업원 새 살림집 전달 모임 진행(중방)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12.28 김정일 지시 관철 께기모임 진행(중방)

2008 북한경제 주요일지*

■ 1.1(화)

- 2008 「신년공동사설」을 발표, ‘2012년 강성대국달성을 목표로 올해에 경제분야에서 역사적 전환’ 강조(중통, 중방, 중앙TV)

■ 1.2(수)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15만산 대발파로 새해 첫 생산전투 장식(중방)
- 김책 제철연합기업소 및 문천 강철공장, 철강재 증산투쟁(중앙TV)

■ 1.3(목)

- 화평읍 2호발전소 건설 조업(중앙TV)

■ 1.4(금)

- 김책제철소 ·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공동사설 관철 생산투쟁(평방)
- 성 · 중앙기관 정무원들, 파철 수백 톤을 천리마제강기업소에 전달(중방)

■ 1.6(일)

- 김정일 위원장, 황북 예성강발전소 건설장 시찰(중통)
 - 최룡해(황북 당책), 이용철(제1부부장), 현철해 · 이명수(대장) 등 동행

■ 1.7(월)

- 올 한해 ‘군사적 위력 강화와 국방공업발전’에 역점(중방)

■ 1.8(화)

- ‘과학기술중시 및 기술인재 양성’ 강조(중방)

■ 1.9(수)

- ‘자립적 경제토대 위에 국제적 협력’ 강조(조선신보)

* 출처: 통일부 「북한주요소식」

- 1.11(금)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공동사설 관철 위한 대상설비 생산에 혁신(중앙TV)
 - 신년공동사설 관철 기관·기업소 꺾기대회(중·평방)
 - 철도성, 직맹, 농근맹, 여맹, 2.8비날론 연합기업소, 혜산청년탄광, 순천화력 등
- 1.13(일)
 - 인민군 군인들과 그 가족들, 공장·기업소 및 농촌 지원(중방)
- 1.14(월)
 - 신년공동사설 관철 공장·기업소 꺾기대회(중방)
 - 평양 방직공장, 신의주 화장품공장, 원산 신발공장, 청진 식품공장, 회령 구두공장 등
- 1.15(화)
 - 신년공동사설 관철 공장·기업소 꺾기대회 계속(중방)
- 1.16(수)
 - 경제건설 주민총동원에 '강계정신' 강조(노동신문)
 - 공동사설 관철 기관·기업소 꺾기대회 계속(중방)
- 1.17(목)
 - 청년들에게 '경제건설의 선봉대·돌격대'가 될 것을 촉구(중방)
- 1.18(금)
 - 김정일 위원장, 평성 은하피복공장 지배인 등에 감사 전달(중방)
 - 평양시, 2012년까지 10만 세대의 주택 건설 추진(조선신보)
- 1.20(일)
 - 「조선우표사」 공동사설을 반영한 우표 7종 제작(평방)
- 1.21(월)
 - 경제 강국 건설에서 자력갱생과 일심단결 강조(노동신문)

·김정일 위원장의 「태천4호 청년발전소」 현지도 기념 평안북도 보고회 진행-신의주시 (중방)

■ 1.22(화)

- 김정일 위원장 「제18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전시장 방문 및 출판작 참관(중방)
- 함경남도에 현대화된 「전자도서관」 개관(중앙TV)
- 성·중앙기관 일꾼들, 인민경제 선행부문 지원사업 활발(중방)
- 기관·사업소별로 공동시설 관철 주민학습 성과적 진행(중방)

■ 1.23(수)

- 각지 청년동맹청년들, 공동시설을 받들고 농촌지원사업 성과(중방)

■ 1.24(목)

- 남포시, 큰물피해 막기 위한 국토관리사업 진행(중앙TV)
- 각지 현지도 단위들, 올해 첫 20일 동안 생산 초과 달성(평방)

■ 1.26(토)

- 김정일 위원장, 강계 닭공장·돼지공장 및 장강 버섯·식료공장, 토끼 종축장 등 현지도, 자강도 정신 강조(중방)

■ 1.28(월)

- ‘강성대국건설에서 기본은 사상 정신력’ 강조(노동신문)
- 「직총」 중앙위 제60차 전원회의, 평양에서 개최(중통)
- 황북 사리원시, 큰물피해 막기 위한 시 안의 하수망 능력 확장공사 진행(중앙TV)

■ 1.30(수)

- 김정일 위원장, 「3월5일 청년광산」 현지도 및 자성을 「내동혁명사적지」 참관(중방)

■ 1.31(목)

- 「농근맹」 중앙위, 1.30 제55차 전원회의 진행(중방)
- 평안북도 돼지공장 신설(중방)

- 2.2(토)
 -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총 공격전' 주민사상교양(노동신문)
- 2.5(화)
 - 미루벌 물길공사(黃北)에 기여한 건설자 등 5,295명에게 「물길공사기념메달」 수여(중앙TV)
 - 인도 정부, 남포항에서 식량기증의식 진행(중앙TV)
- 2.6(수)
 - 평양시 창광봉사관리국, 2백여 가지의 「감자음식품평회」 진행(중방)
- 2.8(금)
 - 자강도 동신군 원흥 온천지구에 40동의 온천살림집 건설(중방)
- 2.9(토)
 - 김정일 66회 생일 즈음 인민들에게 「속성국수」(라면) 제공(조선신보)
- 2.11(월)
 - 평양 대성 다이아공장, 각종 자동차 타이어를 재생하는 새 공정 도입(중앙TV)
- 2.12(화)
 - 함흥시 흥덕구역에 「은덕원」(목욕탕) 새로 건립(평방)
- 2.14(목)
 - 「2012년 강성대국건설」 구호는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현지시찰 중 구상 강조(조선신보)
 - 강계돼지공장 종업원들과 장강군 근로자들,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꺾기모임 각각 진행(중방)
- 2.15(금)
 - 김정일 위원장 생일 연휴인 2.16~17 평양시민들에게 뱀장어요리 공급(중앙TV)

- 2.16(토)
 -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해 싸워나가자’ 題下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 인민소비품문제 해결’을 강조(노동신문)

- 2.17(일)
 - 직충중앙노동자예술선전대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중방)
 - 평양 담배종이공장 등 20개 단위에 모범기대영예상 수여(중방)

- 2.18(월)
 - 몽골 농업 식료자환경부문 근로자동맹 대표단, 2.17 평양 도착(중방)
 - 신의주신발공장, 질 좋은 신발을 하루계획 120% 생산(평방)

- 2.20(수)
 - ‘음악정치’를 통해 경제건설현장에 노력 동원(중통)
 - 「유효명」 주북 중국대사, 2.19 순안구역 조·중친선 택암협동농장 참관, 운전기재와 지원물자를 전달(중방)

- 2.24(일)
 - 「동평양대극장」 지배인, “최근 2년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음향설비, 조명, 장치설비들을 조형화·과학화하고 3층 1,500석 규모로 리모델링”(평방)

- 2.28(목)
 - 평양아명조명합영회사 조업식 현지에서 진행(중방)

- 3.3(월)
 - ‘강성대국 건설에 기본은 사상정신력과 애국심’ 강조(노동신문)
 - 개성시의 올해 616만 9천여 그루 植樹 계획 등 「식수질」(3.2) 즈음 전국 각지 ‘봄철 나무심기’ 전개(중앙TV)

- 3.4(화)
 - ‘인민생활 제일주의’로 2월 생산계획을 앞당겨 달성(중방)
 - 봄철 영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수리 및 정비(중앙TV)

- 3.5(수)
 - 함경북도, 인민경제부문에서 「2월 계획」 초과 달성(중방)
 - 北-독일 외교관계 설정일 즈음 독일과학기술도서 소개모임 진행-함흥화학공업대학(중방)
 - 예성강발전소(황해북도) 건설 조기완공 목표 총력전(중앙TV)
- 3.6(목)
 - 김정일 중심의 일심단결로 강성대국 건설 강조(중방)
- 3.10(월)
 - 김정일, 3.9 성진제강기업소 현지지도 10돌 보고회 진행(중통)
 - ‘농민동맹’결성 80돌 기념 중앙보고회,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중방)
- 3.11(화)
 - 러 철도주식회사 대표단, 하산-나진간 철도 및 나진항 개건 착공일 확정 차 訪北(중통)
 - 해주시 「영양협동농장」의 당면한 올해 농사준비 박차(중앙TV)
- 3.12(수)
 - ‘농민동맹’결성 80돌 기념 전국농업근로자 농구경기대회 개막(중방)
 - 평양시, 대동강 강안2단계정리공사 활발히 진행(중앙TV)
- 3.13(목)
 - 사리원시 미국협동농장 및 사적관, 지난 1년간 13만명 참관(중방)
 - 예성강청년1호발전소, 콘크리트 타일을 3월중 끝낼 목표로 돌격전을 힘있게 추진(중방)
 - 성진제강연합기업소, 수많은 위훈자 배출 독려(평방)
 - 자강도 임업관리국, 통나무생산 초과달성(중앙TV)
- 3.14(금)
 - 2008년 인구센서스 준비작업 진행(중통)
- 3.19(월)
 - 3월 중순 현재 ‘문천탄광’에서 월 계획의 90%를 수행하는 등 전국 각지탄광의 혁신적 석탄생산 성과(중방)

- 3.20(목)
 - 당 중앙위·최고인민회의 상임위·내각, 수풍발전소 등 314개 단위에 ‘사회주의 경쟁 공동순회우승기’ 수여 결정(중방)
 - 北-러, 핫산-나진 사이의 철도와 나진항 개건 착공 합의(중방)
 - 황해남도, ‘벼 냉상모판’(보온못자리) 씨 뿌리기 시작(중앙TV)
- 3.24(월)
 - “사회주의사상의 견인력은 막을 수 없다”에서 ‘오늘의 역사는 사회주의의 승리의 역사’ 강조(중통)
- 3.25(화)
 - 사리원시, 올해 상반기 수백세대의 살림집 건설에 주력(평방)
 - 평북도 공장기업소들, 전력·기계설비·소비품생산에 총력(중방)
- 3.27(목)
 - 전국 농근맹 ‘토끼기르기’ 열성자회의 3.26 평양에서 진행(중통)
 - 백마-철산 물길(평북소재), 올해 농사를 위해 通水 시작(중통)
 - 통천발전소, 요즘 전력생산을 종전보다 1.2배 생산성과(중방)
 - 강계편직·9월 방직공장, 3월 및 1/4분기 인민경제계획에서 성과(평방)
 - 「청류관」 개건 보수공사 시행(평방)
- 3.28(금)
 - 전국 공생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3.25~27 평양에서 진행(중통)
 - 노동신문, ‘조국은 청년영웅을 부른다’ 기사에서 청년들에게 ‘제일돌격대, 총폭탄영웅’ 이 될 것을 촉구(중방)
- 3.31(월)
 - 내각 중앙기관 등, 국토관리 총동원사업에 주력(평방)
- 4.1(화)
 - 경공업성 산하 신발공장들, 1/4분기 인민경제계획 완수(중방)
 -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1/4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중방)

- 4.2(수)
 - 과학자·기술자들에게 '2.16 과학기술상' 수여(중통)
 - 전력공업성 산하 발전소들과 금속공업성 산하 광산사업소, 1/4분기 인민경제계획 각각 달성(중방)
 - 금야강발전소건설 및 미루벌물길공사 진척상황 보도(중앙TV)

- 4.3(목)
 - '축섬혁명사적지'가 조성된(1990.8.10) 이래 현재까지 국·내외 등 1만 6,900여 개 단체, 214만 명 참관(중방)
 - 개성시, 왕건왕릉과 공민왕릉간 관광도로 신설(평방)
 - 각지에서 봄철나무심기(아카시아나무 등) 사업 주력(평방)

- 4.4(금)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5돌 경축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모임(중방)

- 4.5(토)
 - 전력성 산하 수력발전소들, 1/4분기 전력생산 초과 달성(중방)

- 4.8(화)
 - 인민경제 여러 부문(전력·석탄·강철·시멘트 등), 1/4분기 계획수행(중방)

- 4.9(수)
 - 최고인민회의 제11기 6차 회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중방)

- 4.11(금)
 - 각지 당 조직들, 경공업공장과 기초식품공장들의 생산물의 질을 높이는 등 인민생활 제일주의에 주력(중방)

- 4.12(토)
 - 모범적인 단위들 100여 개소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중방)

- 4.13(일)
 - 대동문 영화관 및 옥류관 개건 준공식, 4.13 진행(중방)
- 4.15(화)
 - 김정일, 프로그램기술발전에 기여한 과학자·기술자들에게 선물 전달(중방)
 - ‘우리민족끼리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을 구현하여 평화 번영과 경제강국 건설’ 기념사설(노동신문)
- 4.16(수)
 - ‘조류독감’ 인명피해 실태 및 치료예방사업 국제적 연대강화(평방)
- 4.17(목)
 - 北 대계도(평북) 간석지제방공사장, 12만산 대발파 실시(중양TV)
- 4.19(토)
 - 김용삼 철도상, 러시아 향발(중방)
- 4.21(월)
 - 조선과학기술총동맹, 제23차 중앙과학기술축전 4월 말~5월 초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최 예정(평방)
 - 함북도내 식품·제지·옷공장들,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성과(중방)
 - 봉화광산 조업식 현지에서 진행(중양TV)
- 4.22(화)
 - 강동지구탄광·북창화력 등, 증산투쟁에서 성과(중방)
 - 「예성장발전소」건설 박차(중양TV)
- 4.23(수)
 - 강동군산림경영소, 수림화·원림화 위한 나무모생산 활발(중양TV)

- 4.24(목)
 - 전국 각지 농촌들에서 '당면한 영농준비' 한창(중앙TV)
 - 北-中 합작 「평양백산담배합영회사」 조업식 4.23 진행(중방)
 - 北 철도성-러 철도주식회사, '철도협조협정', 모스크바에서 조인
- 4.27(일)
 - 강계청년발전소 · 검덕광업기업소, 성과적 생산에 주력(중방)
- 4.29(화)
 -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 주민교양(중통)
 - 박의춘 외무상, 중국 방문(4.26~29) 후 歸還(평방)
 - 황북도 청년동맹위,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사상교양사업(평방)
 - 北, 개성시 등 벼모판 비배관리사업 활발히 진행(중앙TV)
- 4.30(수)
 - 「5.1절」 118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4.30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알곡 및 인민소비품 획기적 증산」 강조(중앙TV)
 - 김일성의 '평양블록크공장'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당중앙위, 무역집배 '송화2호' 400항차 수송에 감사문 전달(중방)
 - 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4월 인민경제계획 초과 달성(중방)
- 5.1(목)
 - 5.1절 맞아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하여 경제 강국건설」 강조(노동신문)
 - 황해북도 봉천군, 저수지 건설 완공(중방)
 - 전국 각지, 봄철국토관리 총동원사업 활발히 전개(중방)
- 5.2(금)
 - 대동강 강변정리 2단계공사, 정권창건 60돌(9.9)에 완공예정(조선신보)

- 5.4(일)
 - 강원도 고산과수농장 현지지도(중통)
 - 제11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 5.12~15 진행 예정(중방)

- 5.6(화)
 - 사리원시 ‘미국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 당면한 모내기 제철에 끝내기 위한 ‘호소모임’ 5.5 현지 진행(중방)

- 5.7(수)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을 통해 ‘설비관리법’ 발표(중통)

- 5.8(목)
 - 인민의 복리증진은 조선노동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중통)

- 5.10(토)
 - 봄철 영농전투에 ‘총동원, 역량집중’ 독려(노동신문 사설)

- 5.12(월)
 - ‘청진염소목장’과 새로 건설된 ‘청진수지관공장’ 현지지도(중방)
 - 전국 농촌들에서 올해 모내기 시작 보도(중통)
 - 제11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중통)
 - ‘배기술 검사 및 선급제정 국제연맹 정기회의’ 개최 임박, 중국·우크라이나·독일 등 각국 대표단 평양도착 보도(중방)

- 5.13(화)
 - 平南 강서군 청산협동농장 등에서 모내기 시작(중방)

- 5.14(수)
 -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5.12~15), 성황리에 진행 중(중통)
 - 駐北 이란 대사(‘머르테자 머로디운’) 등 대사관 직원들, 北-이란 친선 ‘입석협동농장’ 참관 및 친선노동(평방)

- 5.15(목)
 -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선전선동사업 강화 요구 社說 게재(노동신문)
 - 제국주의 심리전 극복 방도는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노동신문)
 - 황남 태탄군 인민위, 태탄천 제방보수공사에서 성과(평방)
- 5.16(금)
 - 「배기술검사 및 선급제정국제연맹 정기회의」, 5.13~16 평양에서 진행(중통)
- 5.17(토)
 - 4~5월 ‘약초재배월간’ 사업기간 전국에서 약초재배는 1.6배, 채취와 자원조성은 각각 1.3배 성과(중방)
- 5.19(월)
 - 황북 사리원 대성타월공장, 김父子 현지지도 40주년 기념 보고회, 현지에서 진행(중앙 TV)
- 5.20(화)
 - ‘먹는 문제 해결에 역량 총동원’(노동신문 사설)
- 5.21(수)
 - 상업과학연구소 창립 50돌 기념 보고회, 5.19 현지에서 진행(중앙TV)
 - 영국대사관 성원들, 평안남도 백송협동농장 농사일 지원(중통)
 - ‘금속건설사업소’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5.20 전승훈 내각 부총리 등 참석하에 현지 진행(중방)
- 5.22(목)
 - ‘존 에버라드’ 駐北 영국 특명전권대사와 직원들 농사일 지원(중앙TV)
- 5.27(화)
 - 평안남도 청남구, 탄부들을 위한 전자도서관 건설(평방)
 - 北 온포휴양소 등, 근로자들 위한 여름철 휴양 시작(평방)

- 5.29(목)
 - 김정일, 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지지도(중통)
 - 동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현대화사업 추진(조선신보)
 - 駐北 중국대사관 성원들, 평양시 순안구역 朝中친선 택암농장에서 모내기 일손돕기 및 지원물자 전달(중방)

- 5.30(금)
 - 김정일, '백운산유원지', '홍남제련소' 현지지도(중통)
 - '올해 식량사정 악화'(조선신보)

- 5.31(토)
 - 김정일, '백운산유원지', '홍남제련소' 현지지도(중통)
 - 김정일의 자강도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5.30 현지진행(중방)

- 6.2(월)
 - 평안남도 '잠진-대보' 물길 1단계공사 완공으로 통수(通水) 보장(평방)
 - 北, 전국 각지 도로기술 개건사업 및 비 피해 예방 보수정비사업 진행(평방)
 - 사리원 애국수지일용품공장, 5월 계획 103%로 넘쳐 수행(중방)

- 6.3(화)
 - 러시아철도주식회사 대표단(단장: '아나톨리 월로진'), 열차편으로 「라선」 도착(평방)

- 6.4(수)
 - 北 - 中정부, 세관분야 협조협정 베이징에서 조인(중방)

- 6.5(목)
 - 김일성의 홍남비료연합기업소·서호수산사업소 현지지도 60돌 기념보고회, 6.4 진행(중방)
 - 김용삼 철도상, 철도협조기구 제36차 상회의 참가차 우크라이나 향발(평방)

- 6.6(금)
 - 김정일과 김정숙의 첫 모내기 60돌 기념보고회도 6.5 평양 미림혁명사적지에서 김중

- 린·이경식·강창욱(농근맹 위원장, 보고) 등 참가하에 진행(중방)
- 사리원시 길성포지구에 ‘야외수영장’ 건설, 준공식(중방)

- 6.10(화)
 - 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궐기모임 6.7일, 9일 각각 진행(중방)

- 6.12(목)
 - 김정일, 제534군부대 산하 식료공장 시찰 - 현철해, 이명수 동행(중통)

- 6.14(토)
 - 김정일, 평안북도 ‘대계도간석지건설장·룡천군 신암협동농장’ 현지지도(중통)
 - 중국 지수평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대표단, 평양 도착(중통)

- 6.15(일)
 - 김정일, ‘북중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중통)

- 6.17(화)
 - 노동계급 및 「직맹」원들, 김중린(黨비서)·김성철(「직총」 부위원장, 보고) 등 참가하에 김정일 당사업 시작 44돌(6.19) 경축모임 진행(평방)
 - 北, ‘2008년 국제정보통신박람회’(싱가포르, 6.17~20) 참관단 파견(조선신보)
 - 駐北 러시아 대사 ‘알레리 쉰히닌’과 성원들, ‘조-러 친선 고창협동농장’(平南 천리마군) 친선노동(중통)

- 6.18(수)
 - 전국적으로 앞그루재배면적과 모판면적을 제외한 ‘벼 모내기 결속’(중통)
 - 北, ‘강계침목방부공장’ 조업식 현지에서 진행(중방)
 - 北, 전국적으로 벼 모내기 결속(중방)

- 6.19(목)
 - 김정일의 黨사업 시작 44돌(1964.6.19) 기념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김정일의 두리에 경제강국 건설 총진군’ 역설(평방)

- 6.22(일)
 - 김정일, 평양시건설지도국 일꾼 등에게 「감사」 전달(중방)
- 6.23(월)
 - 최근 강계시(자강도) 일부구간에 '무궤도전차' 개통, 운행(중앙TV)
- 6.24(화)
 - 자력갱생은 우리의 생명'(노동신문 논설)
- 6.26(목)
 - 순천화력발전소, 장마철 대비 안전대책 마련 사업 진행(중방)
- 6.27(금)
 - 김정일,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 지원한 강원도 송배전부 등에 「감사」 전달(중방)
 - 황해남도 등 전국 각지 농촌들에서 감자와 밀보리 수확 한창(중방)
- 6.30(일)
 - 北 전력·석탄·금속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부문 많은 단위들, 올해 상반기 계획 초과 수행(중방)
 - '과학기술발전은 자주권옹호와 민족번영의 근본요인'(노동신문)
- 7.2(수)
 - 北, 장마철 대비 큰물피해방지 대책사업 총력(중통)
 - 대성요업공장,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초과 수행 - 위생자기 및 타일 생산 공장(평방)
- 7.3(목)
 - 노동계급과 「직맹」 원들, 김중린·김병팔(「직총」 위원장, 보고) 등 참가下에 김일성 사망 14돌 기념 '맹세모임' 진행(중방)
 - 철도성의 상반기 수송계획 100.3% 초과완수 등 전국 각지 탄광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상반기 계획 초과달성 선전(중방)

- 7.4(금)
 - 北 농업근로자들, 7.3 김일성 사망(7.8) 14돌 기념 맹세모임 진행(평방)
- 7.6(일)
 - 김정일, 자강도임업설계연구소 실장 등에게 「감사」 전달(중방)
- 7.7(월)
 - 北 내각, 「상업회의소 규정」 채택 발표(민주조선)
 - 최근 「평양화장품공장」 기술자들이 김일성종합대학 등 연계하에 ‘인삼 살결물과 썩크림’ 등 10여종의 고급화장품 개발, 호평 자랑(중통)
- 7.8(화)
 - 러시아 제공 식량(세계식량계획을 통해 北에 제공), 열차로 신의주 도착(평방)
- 7.9(수)
 - 김정일, 평안북도 태천군 은흥협동농장·평북돼지공장·태천청년토끼중축장 등 현지지도(중통)
 - 송전건설사업소 일꾼들, 영원발전소 건설에 보내줄 철탑생산에서 성과(중방)
- 7.10(목)
 - 자강도 화평군 근로자들, 김정일 지시 관철 꺾기모임 7.9 진행(중방)
- 7.11(금)
 - ‘北-中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47돌 즈음 대외문화연락위와 조-중친선협회 중앙위 주최 연회, 7.10 옥류관에서 진행(중방)
 - 수백톤의 복숭아 첫물과일을 실은 수송대, 평양 도착(중방)
- 7.14(일)
 -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어’ 題下로 김일성 생애 “사회주의 공업화 토대를 실현한 현명한 영도력” 회고 및 노고 칭송(중방)

- 7.15(화)
 -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어’ 題下로 김일성 생애 “사회주의 공업화 토대를 실현한 현명한 영도력” 회고 및 노고 칭송(중방)

- 7.16(수)
 - 여름철 ‘큰물피해 사전방지책’ 마련(조선신보)
 - 평안북도 태천군 ‘은홍협동농장’ 등 각급 단위들에서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쫓기모임, 7.15 각각 현지에서 진행(중방)

- 7.17(목)
 - 평양 시내 중심거리 90여만㎡ 아스팔트로 재포장(조선신보)

- 7.18(금)
 - 정권 내각, 「국경교두종합무역장관리운영규정」에 관한 결정 채택(민주조선)
 - ‘웅진대홍수산사업소’ 1차 김 가공장 및 인공배양장 건설 조업(중방)

- 7.19(토)
 - 평양 만수대거리(보통문 - 만수대의사당) 전면 개건공사 진행(조선신보)

- 7.20(일)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대형산소분리기 기본설비조립 완공으로 인한 정상 가동(중방)

- 7.21(월)
 - 제7호 ‘태풍’영향으로 최대 280mm 등 대부분 지방에 폭우(중앙TV)

- 7.22(화)
 - 「농근맹」 중앙위 제56차 전원회의, 평양에서 진행(중방)

- 7.23(수)
 - 김정일,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주강직장 교관 등에 생일 70돌상 전달(중방)
 - 「직총」 중앙위 제61차 전원회의, 7.23 평양에서 김경팔(「직총」위원장, 보고) 및 중앙위원회 위원들·중앙과 지방 일꾼들 참가하에 진행(중방)

- 7.24(목)
 - ‘식량문제 해결은 사회주의 승리의 첫째가는 중대사’(중방)
- 7.25(금)
 - 평양시 구역도시시설관리소, 석탄공업부문, 황해남도와 평안남도의 협동농장 등에서 국가의 지도밑에 장마철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 적극 진행中 (중통)
 - ‘자체의 힘으로 농업생산을 늘여 나가고 있는 우리 인민들’, 題下로 오늘의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 압살책동 강화와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체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농업증산 투쟁 소개(평방)
- 7.27(일)
 - ‘당의 선군영도따라 백전백승의 역사를 끝없이 빛내어 나가자’ 題下 사실을 통해 ‘경제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노동신문)
- 7.28(월)
 - 구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 장마철 큰물피해 방지대책을 세워 석탄생산에 매진(중방)
 - 평양시 건설지도국, 만수대거리 개건공사 빠른 속도로 진행(중방)
- 7.29(화)
 - 김정일, 금수산기념궁전 꾸리기에 기여한 만경대승용차사업소 등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7.30(수)
 - ‘여성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자’ 제하 社說 게재(노동신문)
- 7.31(목)
 - ‘임농복합경영’ 관한 민족토론회, 7.29~31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중통)
 - 개성시안 여러 곳 폭우 피해실태 사실보도(중앙TV)
 - 演壇, “농업무문 일꾼들이 농사를 자체의 힘으로 질적으로 해서 알곡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문제 원만히 해결” 강조(중방)

■ 8.1(금)

- 평북 영변견직공장 창립 60돌 기념 보고회, 7.31 현지에서 진행(중통)

■ 8.5(화)

- 「새기술소식」 5,000호 발간 기념보고회, 8.4 변영립(국가과학원장)· 주성룡(중앙과학기술통보사 사장, 기념보고) 등 참가하여 진행(중통)
- 8월 1~3일 조선의 대부분 지방에서 폭우로 피해 발생(중통)
- 美 기증식량 1차분 2번째 항차, 8.4 남포항 도착(중통)
- 러시아 철도주식회사 대표단(알렉세이 메르씨야노브 부총사장), 평양 도착(중통)

■ 8.6(수)

- 김정일, 예성강발전소 건설지원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각 도와 시·군 등 전역에서 “식량안전 보장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林農복합경영을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조와 교류에도 힘을 넣고 있다”고 다양한 활동진행 상황 보도(중통)
- ‘신계고구마가공공장’ 완공, 8.5 조업식 진행(중방)

■ 8.7(목)

- 北-러, 8.6 ‘나진-두만강 철도임대계약서’ 체결(중통)

■ 8.8(금)

- 김정일, 함경북도 함주돼지공장과 함주덕평풍덕염소목장 현지도(중통)
- 김정일,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압축기 운전공 등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중방)

■ 8.9(토)

- 김정일, 함경남도 리원군산림경영소 양묘직장 현지도 - 김기남 黨비서 동행(중통)
- 조선정부과학기술대표단(단장: 백천호 국가과학원 부원장), 말레이시아 정부와 과학기술협조공동위 제2차 회의 참가차 평양 출발(중통)

- 8.10(일)
 - 北, 8.9 박천건축공장 창립 60돌 기념 보고회 개최(중방)
- 8.11(월)
 - 자강도 시중군, 읍지구의 3개 요소에 대한 하수망 확장공사 진행(중방)
- 8.13(수)
 - 청년절 기념 전국 청년과학기술성과 전시회,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중통)
 - 정권수립 60주년(9.9)을 앞두고 강성대국건설 총돌격전 촉구(중방)
- 8.14(목)
 - 원산청년발전소 1호 발전소의 마지막 발전기와 압력관로 조립공사 완공(중방)
- 8.16(토)
 - 평양호텔 2층식당 현대화 공사완료, 올 5월 시작된 공사는 종래 250석이던 좌석이 400석으로 확장 되는 등 15일부터 영업시작 자랑(조선신보)
- 8.17(일)
 -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2호발전소’가배수로 물길굴공사 완공(중방)
 - 만수대거리 개건공사 및 평남 안주시 은덕원 건설 진행 중(중·평방)
- 8.19(화)
 -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 8.18 강창욱 농근맹 중앙위원장 등 참가하에 ‘가을걷이와 낱알 털기 총력’ 쫓기모임 진행(중방)
 - 北-러, ‘나진-두만강 철도와 나진항 개건을 위한 착공준비’ 등 “나선지대에서의 北-러 협조는 적극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보도(중방)
 - 자강도, 중소형 발전소 건설에 주력(중방)
 - 원산화학공장, 현대적 밀봉재 생산 공정 완공(중방)
 - 평안남도, 강서돼지공장 개건공사 완공(평방)
 - 함흥편직공장, 보온내의와 아동내의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편직물 새로 개발(중방)

- 8.20(수)
 - 김책착암기공장, 8.19 김정일 현지도 20돌 기념 보고회 진행(중방)
 - 황남 은률군 청년전위, 가을걷이와 낱알 털기 전투의 선봉대·돌격대가 되기 위한 쉼 기모임 진행(중방)
 - 단천광업건설연합기업소, 미광 침전지 완공(중방)

- 8.21(목)
 -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김정일의 선군영도 개시 48돌 기념 경축모임(중방)
 - 황해남도 채령광산, 8.19 김일성 현지도 60돌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황해남도, 지방공업 공장들에 대한 개건공사에 역량 집중(평방)
 - 평양시 건설지도국, 웅장화려한 평양시 건설 및 개건공사 진행(평방)
 - 평양 3.26전선공장, 현대적인 알루미늄 선재생산 공정 가동(중방)
 - 평안북도 간석지건설관리국, 대계도간석지 건설에 주력(중방)
 - 자강도, 전기화된 농촌살림집 건설투쟁에 주력(평방)

- 8.24(일)
 - 김일성의 평천대형운전기제공장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 8.23 진행(중방)

- 8.25(월)
 - 北, 남포시 와우도 유원지 꾸리기 사업 진행(중방)

- 8.26(화)
 - ‘단천광산기계공장’의 1단계 개건공사 완공(중방)

- 8.27(수)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광석운반계통 능력확장공사 조업식, 8.26 전승훈(내각부총리) 등 참석하에 현지 진행(중방)
 - 함경북도 경성군, 하온포지구에 살림집 50동 건설(평방)

- 8.28(목)
 - 김영남·김영일·양형섭·김기남·김중린·최영림 등 黨·政 간부들이 김중태전기기관

차연합기업소 등 각지 공장·기업소 등 ‘청년절’ 기념행사에 참가, “청년들을 축하해 주었다”고 보도(중방)

·김정일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선전(중통)

■ 8.29(금)

·전국농기계전시회와 기술혁신발표회, 8.26~28 황해북도 황주군에서 진행(중통)

■ 8.30(토)

·北, 모범적 단위들에 26호 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할 데 대한 정령 제2838호 발표(중방)

·김정일의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현지지도 20돌 기념보고회, 8.29 진행(중방)

■ 9.1(월)

·「제5차 전국나노과학기술발표회 및 나노제품전시회」, 10.22~23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개최 예정(중통)

·지난 10여 년간 태천4호발전소·황해제철연합기업소 강철직장 100t전기로 조업 등 6만 여개의 기본건설대상 준공 선전(중통)

■ 9.2(화)

·평양철도국, 은산-순천화력발전소 사이 철도 전기화공사 완공(평방)

■ 9.3(수)

·강계돼지공장(자강도) 건설 조업식도 현지 진행(중방)

■ 9.4(목)

·성천발전소(平南) 건설 준공식, 9.3 현지 진행(중방)

·대계도간석지 1호 방조제 공사 완공(중방)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전기로 현대화공사 마감단계에서 추진(중통)

■ 9.5(금)

·함북 명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9.4 용반탄광 2갱 조업식 진행(중방)

·평남 청년탄전 개발 50돌 기념보고회, 9.4 2.8직동청년탄광에서 진행(중방)

■ 9.6(토)

- 咸北 청진시 김책제철연합기업소(北 최대의 제철소), 대형 산소분리기 설치 조업식 진행 - 전승훈, 홍석형, 박수길 등 참가(중방)
- 사리원시와 곡산군에 유기질복합비료공장 준공(중방)
- 황해북도 농업과학기술 보급관, 9.5 현지에서 개관식 진행(중방)
- 사리원시와 곡산군, 유기질 복합비료공장 준공식 진행(중방)

■ 9.7(일)

- 금성트랙터공장 新 함유연생산체계 조업식, 9.6 현지에서 진행 - 박남기(중방)
- 평양방직공장, 9.6 생산공정의 현대화공사 완공에 따른 조업식 진행(중방)

■ 9.8(월)

- 2.8마동시멘트공장, 1호 소성로 개건준공식, 9.7 현지 진행(중방)
- 개천철도국, 염주-남신의주-신의주 구간 콘크리트 침목관리공사 진행(중방)
- 사리원경암술공장, 개건 준공식 현지에서 진행 - 최용해 黃北道 당책(중방)
- 평안북도 남신의주 지구, 500여 세대 주택건설(중방)

■ 9.12(금)

- 개성시에 유기질복합비료공장 준공식, 9.11 이상원(개성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참석하에 현지 진행(중방)
- ‘당면한 가을걷이 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농업근로자들’ 題下로 세계적 식량 위기와 관련해 자체의 힘으로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농업근로자들의 투쟁 소식 소개(평방)

■ 9.14(일)

- 사리원공장을 본보기로 전국 시·군들에 유기질복합비료공장 건설 박차(중방)

■ 9.15(월)

- ‘모든 힘을 가을걷이전투에 총동원하자’ 題下 농업전선은 강성대국의 가장 중요한 전선이라며 가을걷이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督勵(노동신문)
- 北 대흥단군, 감자 첫 수확 및 평양시 등 강냉이 추수에 총력(중방)

- 9.17(수)
 - 삭주직물공장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9.16 현지에서 진행(중방)

- 9.18(목)
 - 北 국제신타개발회사, 국내외기업들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나라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조선신보)
 - 청진항만건설사업소, 서항방파제 개건 확장공사 완공(평방)
 - 평안북도 지방특산음식품평회, 신의주시 압록강각에서 진행(평방)
 - 황해남도 안의 농촌들, 벼가을(익은 벼를 거두어들이는 일 - 추수) 시작(중방)

- 9.19(금)
 - 北,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비롯한 각지 공장·기업소·문화시설 80여 개 건설 및 60여 개 개건(중방)

- 9.20(토)
 - 전국감자부문 과학기술성과 발표회, 9.18~19 대흥단군에서 진행(중방)

- 9.22(월)
 - 김정일, 평양고무공장 노동자 등에 「감사」 전달(중방)
 - 제4차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9.22~25), 개막식(3대혁명전시관) 진행(중방)
 - 2.8비날론연합기업소, 2단계 개건공사 본격 추진(평방)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가스화 대상공사 본격 추진(중방)
 - 강원도 김화군, 봉사시설 신설 및 개건사업 활발히 전개(평방)

- 9.23(화)
 -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題下로 “자위적 국방력강화, 먹는문제 해결 등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막바지 과업관철에 당원·인민들 총동원” 독려(노동신문 사설)
 - 北 강서돼지공장 개건 준공식, 9.22 현지에서 진행(중방)

- 9.24(수)
 - ‘지하자원보호부문 과학기술발표회, 9.23 인민대학습당에서 한창식(北자연보호연맹 지하자원보호협회 위원장/연설) 등 참가下 진행(중통)
 - 김책공업대학 창립 60돌 기념 과학토론회, 9.23 김책공대에서 개막(중앙TV)
 - 평안북도 향산군, 시멘트생산기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평방)
 - 함경북도 무산군, 기초식품공장과 郡 식료공장 기술개선 사업 진행(중방)

- 9.25(목)
 - 平南 문덕군 룡림리에 300동의 현대적 살림집 완공 및 200여 동 개건보수 완공(평방)

- 9.26(금)
 - 2.8직동청년탄광·순천구두공장, 9.25 김일성·김정일父子 현지도 40돌 기념보고회 각각 진행(중방)
 - 청진항만건설사업소의 일꾼-노동자들이 규모가 가장 큰 청진 서항의 방파제 개건공사 완료 성과 보도(중방)
 -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 평양에서 개막 - 허태권 경공업성 부상 개막사(중통)
 - 함경남도, 구창4호발전소·추상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건설에 총력(평방)
 - 北, 곡산군 평암리 돌미산 기슭에 30여 동의 살림집 건설(중방)

- 9.27(토)
 -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 10년간 54만 여 건 기술혁신 과제 수행 선전(중방)

- 9.29(월)
 - ‘제4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9.22~25, 3대혁명전시관)’ 개최 관련 “참가기업 수 증가했고, 수출입 및 합영합작등 수많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평가(조선신보)

- 9.30(화)
 - 김정일 노작(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 데 대하여)발표 10돌 기념 중앙보고회, 양강도 대흥단군에서 진행 - 최태복(보고), 최영립, 광범기 등 참가(중통)
 - 성·중앙기관 일꾼들, 대흥단군 내 창평·홍암농장 등 여러 곳 참관(중통)
 - 함경남도 인민위, 수력발전소 건설 등에 역량집중(중방)

- 10.1(수)
 - ‘제10차 전국발명 및 새기술전람회’,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중통)
 - 양강도 대흥단군문화회관에서 김정일 노작(*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 데 대하여) 발표10돌 기념 ‘사진전시회’ 진행(중통)
- 10.2(목)
 - 전국 기초식품전시회 및 발표회(9.30~10.2),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중통)
- 10.3(금)
 - 김정일, 예성강청년1호발전소 준공 「보고받고 감사」 전달(중방)
 - 김정일 노작(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 데 대하여) 발표 10돌 기념 현지미술습작품 전시회, 대흥단군 문화회관에서 진행(중방)
- 10.4(토)
 - ‘나진-햇산 철도 및 나진항 개건’ 착공식, 두만강역지구 朝-러 친선각 앞에서 진행 (중·평방·중통)
- 10.6(월)
 - 강원도·황해도·평안남도 등 당위원회, 경제선동 활발히 진행(중방)
 - 한천대붕수산사업소, 연간 인민경제 계획 초과 달성(평방)
- 10.13(월)
 - 김정일,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분석화학연구소 연구사(신병정) 등에 생일상 전달(중방)
- 10.14(화)
 - 北-中,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4차 회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중방)
- 10.15(수)
 - 北, 전국적으로 가을 밀보리 심기 종료(중방)
- 10.16(목)
 - ‘평양방직공장’ 창립 60돌 보고회, 10.15 허태권(경공업성 부상) 등 참가下 현지 진행(중방)

- 北, 세계 식량의 날 관련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마음먹고 달라붙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식량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중통)
- 황해북도 은파봉화광산, 10.15 조업식 현지에서 진행(중방)

■ 10.17(금)

- 김정일, 강원도 고산과수농장에 운전기재들과 영농물자 전달(중방)
- ‘2.8직동청년탄광’에 黨중앙위 감사문 전달모임, 10.16 김형식(석탄공업상) 등 참가하 진행(중방)

■ 10.18(토)

- 김父자의 ‘사리원닭공장 및 포도술공장’ 현지지도 40돌 기념보고회, 10.17 현지 진행(중방)
- 함흥농업대학 창립 50돌 기념 보고회, 현지 진행(중앙TV)

■ 10.19(일)

- 咸北道 경성군 하온포지구에 50동의 살림집 건설(중방)

■ 10.20(월)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증산천침전지 조업식, 10.19 광범기(내각부총리) 등 참가하에 현지 진행(중방)
- 동평양화력발전소의 3호 보일러 대보수도 성과적으로 완료 보도(중방)
- 北 서해지역 농촌들, 벼가을 전투 힘 있게 전개(중방)

■ 10.21(화)

- ‘만수대거리’개건공사 건설자들의 결의모임 진행(중방)

■ 10.22(수)

- ‘우리 행복의 열매를 우리 힘으로’ 題下 정론을 통해 쌀은 곧 사회주의이고 강성대국이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식량문제 해결 촉구(노동신문)
-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 10.21 평양에서 허태권(경공업성 부상/개막사) 등 참가하 개막(중통)
- ‘연탄봉화피복공장’ 개건 조업식, 10.21 현지 진행(중방)

- 北, 어랑천발전소 2단계 건설 힘있게 추진(중방)
- 전국 농업근로자 농악무경연, 평양에서 연례적으로 진행(중통)

■ 10.23(목)

- ‘경제건설에서 당의 과학기술 중시노선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자’ 題下, “식량문제 해결 등에 부족한 원자재로 생산과 질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한다”며 과학기술 중시 강조(노동신문 사설)

■ 10.24(금)

- 제19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 10.23 최태복(黨비서)·노두철(내각 부총리)·변영립(국가과학원 원장/개막사) 등 참가下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중방)
- 고산진혁명사적관과 희천공작기계공장·희천제사공장·희천여관, 김정일의 현지도도 10돌 기념보고회 진행(중방)
- 평양통신기계공장, 10.23 김일성 현지도도 60돌 기념보고회 진행(평방)
- 駐北 몽골대사관성원들, 황북 사리원시 정방협농 친선노동(중통)
- 北, 중앙동물원 개보수공사 마감단계에서 활발히 진행(평방)

■ 10.27(월)

-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운 당과 수령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자’ 題下로 김일성 父子의 “사회주의 국가 경제강국 건설 등 혁명업적 체득 및 黨의 주체사상, 선군사상 무장” 주민들 독려(중방)
 - * ‘우리 행복의 열매를 우리의 힘으로’ 題下의 노동신문 정론을 통해서 “쌀은 곧 사회주의이고 쌀은 곧 강성대국이며, 우리에게 생명선처럼 귀중한 것이 바로 쌀, 식량” 이라며 세계적 판도의 식량위기 극복위해“ 먹는 문제에서 자체의 힘과 헌신적 노력 해결” 주문(중방)

■ 10.29(수)

- 北-中, 「압록강과 두만강 수문사업협조에 관한 회담록」 조인(중통)

■ 10.30(목)

- 駐北 중국 대사관성원들, 평양시 순안구역 태암협농 가을걷이 지원(중통)

·삼지연장공장 준공식, 10.29 김경호(양강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및 최일룡(경공업성 부상) 등 참가下 진행(중방)

■ 10.31(금)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초고전력전기로' 조업식 진행(중방)

■ 11.3(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더욱 철저히 구현해 나가자'(노동신문 사설)

·평양시 형제산구역 체산협농·순안구역 대양농장마을, 새 농촌주택들 건설(평방)

■ 11.4(화)

·제6차 전국조선옷전시회 개막(중방)

■ 11.5(수)

·北, 우표들(소형전지 1종, 개별우표 7종) 새로 발행(중통)

■ 11.6(목)

·北 내각, 「편의봉사사업규정」과 「사회보장법시행규정」에 관한 결정 채택(중통)

■ 11.7(금)

·北, 우주연구개발 분야에 주력 表明(중방)

■ 11.8(토)

·함경북도 무산군인민위, 성천수 제방보수공사 완료(중방)

■ 11.9(일)

·영원발전소 1호발전설비 조립 완성(중방)

·北, 10년간의 토지정리 성과 선전(중방)

■ 11.10(월)

·김정일, 청진염소목장(5.12 현지도도 보도)에 윤전기재들과 설비들 전달(중통)

- 11.11(화)
 - 김일성의 ‘평양밀가루공장’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회, 11.10 진행(중방)
 - 함경남도 장진군, 자연흐름식 수도화 공사 완공(평방)

- 11.12(수)
 - 함경남도 단천광산기계공장, 11.11 창립 50돌 기념 보고회 진행(중방)

- 11.13(목)
 - 문평제련소에 유색금속 생산공정 새로 건설(중방)
 - 北 만수대거리, 1,000세대 규모의 살림집 골조공사 진행(조선신보)

- 11.14(금)
 -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푸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사업’(중방)

- 11.15(토)
 - 강서군 청산협동농장과 전천음료가공공장에 3중3대혁명붉은기, 락랑영예군수지일용품 공장과 초산포도술공장에 2중3대혁명붉은기 수여(중방)
 - 신의주화장품공장 비누직장 개건 조업(중방)
 - 무산군, 200여세대 살림집 건설 추진(평방)

- 11.17(월)
 - 北 농업성, 11.12~13 ‘전국농업부문기술경험발표회’ 진행(조선신보)

- 11.18(화)
 - ‘총공격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노동신문 사설)

- 11.19(수)
 - 고보청년발전소(자강도 위원군) 건설 조업식, 11.18 박도춘(자강도黨 책임비서) 등 참가 하 현지진행(중방)
 - 北 도시경영성-쿠웨이트 아랍경제개발기금, 협조에 관한 합의서 평양에서 조인(중통)
 - 빨스까, 삼석구역 조선빨스까친선 장수원협농에 종합정미기 기증(중통)

- 11.22(토)
 - ‘우리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 題下 강성대국건설 및 김정일 勞苦 칭송(노동신문 정론)
- 11.24(월)
 - ‘인재가 많아야 나라가 흥한다’ 題下 논설에서 인재중시 강조(노동신문)
- 11.25(화)
 - 北, 11.26~27 제2차 전국버섯재배부문 과학기술발표 및 전시회 진행예정(중통)
 - 김정일, 락원기계연합기업소와 신의주화장품공장 비누직장 현지지도(중통)
- 11.27(목)
 - 北, 원격식기상수문관측설비 개발 위한 연구사업 활발히 진행(중통)
 - 평양일용품공장 · 평양기료품공장, 머리빈침직장 조업식 진행(,중통)
 - 대동강 강안정리공사(아스팔트도로포장, 살림집과 공공건물 시설물 개건공사 등) 완료 자랑(중방)
- 11.28(금)
 - 평양3.26전선공장 金父子 ‘모자이크벽화’ 및 ‘혁명사적비’ 건립 준공식도 진행(중방)
- 11.29(토)
 - 평양3.26전선공장 창립(58.11.19) 50돌 기념보고회, 11.28 현지 진행(평방)
- 11.30(일)
 - 원산목장, 신천군 새날농장에 김일성 ‘모자이크벽화’ 및 은파군에 김정숙 ‘모자이크벽화’ 도 건립 준공(평방)
 - 黃南 · 강원도 · 咸南 등 전국 各道 탐사관리국 산하 탐사대들에서 석탄 · 철광석 · 광물 등 “유망한 지하자원 매장 발견” 성과 보도(중방)
- 12.1(월)
 - 김정일의 고산군 란정협동농장 현지지도(98.12.1) 10돌 기념보고회, 11.30 현지 진행(중방)

- 12.2(화)
 - 김정일, 개건 확장된 중앙동물원(대성산기슭 100여 정보의 부지) 현지지도(중통)
- 12.3(수)
 - ‘올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 공격전을 힘있게 벌리자’(노동신문 사설)
 - ‘이민위천은 조선노동당 국가건설의 근본이념’ 題下,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 노선과 施策” 선전(노동신문)
 - 김책시 상평리 송홍온천지구, 30동의 온천살림집 건설 마감단계 진행(평방)
 - 北-싱가포르, 12.2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인(중통)
- 12.4(목)
 - 회령기초식품 공장, 2중 3대혁명붉은기 쟁취(중방)
- 12.5(금)
 - 낙원기계연합기업소·신의주화장품공장, 12.4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위한 종업원 쉼기 모임 진행(중방)
- 12.7(일)
 - 올해 3중3대혁명붉은기 10여 개 단위, 2중3대혁명붉은기 210여 개 단위, 3대혁명붉은기 880여 개 단위가 쟁취(중방)
- 12.8(월)
 - ‘당의 경제정책을 틀어쥐고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노동신문 사설)
- 12.9(화)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사리원방직공장, 대상설비 생산 및 설비 개선사업 주력(중방)
- 12.10(수)
 - 平北 운전군에 도서관(성인·학생열람실, 컴퓨터실, 과학기술보급실 등) 건립(평방)
- 12.11(목)
 - 김정일, 개건된 「사리원닭공장」과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현지지도 및 새로 건설

된 사리원시 「민속거리」 시찰 보도(중방)

- '부강조국건설의 생명선' 題下 석탄증산은 곧 주체조국의 번영이며 승리라고 주장하며 석탄증산 투쟁 독려(노동신문 정론)

■ 12.12(금)

- 조선노동당출판사와 만수대장작사, 새해 농사채비로 고무추동하는 선전화 '모두다 떨쳐나 새해농사채비를 힘있게 다그치자!' 및 '질 좋은 기름을 더 많이 내자! 창작(중통)
- 김정일, 12.10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원들의 올린(11.25) 편지에 대한 「친필서한」 전달(중방)

■ 12.14(일)

- 北 100여 만 명의 청년들,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돌격대활동 활발히 전개(중통)

■ 12.15(월)

- 김정일, 강계철도분국 공인용 노동자 정명회 등에 감사전달(중방)
- 3세대 이동통신 개통식, 노두철(내각 부총리)· 류영섭(체신상)· 박명철(조선체신회사 사장/연설)과 이집트 오라스콤 전기통신회사 성원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중통)
- 김영일, 이집트 오라스콤 전기통신회사 대표단과 담화(중방)

■ 12.16(화)

- 평양에 北-이집트 합작 「오라은행」 개업(중통)

■ 12.17(수)

- 김정일, 자강도 성강군에 위치한 '2월제강종합기업소' 현지도(중통)

■ 12.18(목)

- 김정일, 리종욱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도(중통)
-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김정일 현지도 10돌 기념 보고회 12.17 진행(중방)
- 北-체코, 12.17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수정보충과 관련한 의정서' 조인(중방)

- 12.20(토)
 - 운산역 ↔ 순천화력발전소간, 함흥 조차장역부터 비날론역 사이의 철도 전기화공사 완공(평방)
 - 北 보건성 장정길국장, 2007년에 비해 2008년도 의료기구공업생산 120% 성장 전언 (조선신보)
- 12.21(일)
 - 김정일, 자강도 희천도자기공장 현지도(중통)
 -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 전시 및 발표회, 12.18-19 평양에서 진행(중방)
- 12.25(목)
 - 김정일,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현지도(중통)
- 12.26(금)
 - 김정일의 사리원돼지공장 현지도 1돌 기념 보고회, 12.25 진행(중방)
 - 강동수력건설연합기업소 종업원 새 살림집 전달 모임 진행(중방)
- 12.27(토)
 - 北, 궤도전차 새 모습으로 일부구간 운행(12.24부터) 재개(조선신보)
 - 평양의료기구공장(*1960년대 초 건설되어 2005년부터 개건사업 진행) 개건(조선신보)
- 12.28(일)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12.28 김정일 지시 관철 쫓기모임 진행(중방)
- 12.30(화)
 - 北, 연산군민발전소 조기 완공으로 첫 전기생산(중방)
- 12.31(수)
 - ‘공화국의 위대한 역사를 빛내인 불멸의 영도’ 題下, 올해 첫 예성강발전소 시찰을 시작으로 자강도 현지도 등 “주체 97(2008)년은 공화국의 60성상을 찬란히 빛낸 영광의 해”라며 김정일의 올 한해 현지 활동 등 선군영도업적 찬양(중방)

2008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09년 전망

- 인 쇄: 2009년 1월 28일
- 발 행: 2009년 1월 29일

-
- 발행처: 통일연구원
 -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 편집인: 남북협력연구실
 -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 전 화: (대표) 02)900-4300
(직통) 02)901-2524
(팩시밀리) 02)901-2572
 -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 기획디자인 인쇄처 현프린트 (02)2273-7142

2008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09년 전망